

월간 가든인 11월호

November 2014

Monthly

Gardenin

특집
기사

가을 추식 구근식재방법 및 퇴비만들기



Garden in Horticulture

경향과 약화가 뛰어난 맛의 조화가 다
늘 구근 식재
나국의 추수 감사절
나국의 전통라일 "밤(chestnut)의 진실

Garden Design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도시정원문화
면 길을 돌아 산책로를 한다 영국 정원 여행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아담스 가든 2014



Secret Garden

아리리 뚜껑으로 만드는 이끼정원
창작형 화분의 디자인
온대 무대를 상상된것만
유기농퇴비만들기



ISSN 2288-1719



10,000원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Movie, Q&A, Book & Flower Festival, 세계의 축제

추파용종자!!! 지금 파종해야 합니다.

추파용종자의 대표주자 양귀비, 우리꽃이 개발한 우리법면혼합종자는
지금 파종해야 내년 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양귀비

대한민국의 양귀비 우리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귀비 전문회사 우리꽃에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031-634-7990 대량구매~소량구매 가능**

가을 파종

우리법면혼합종자

일년생과 다년생 26종이 생태적, 경관적으로 혼합된 우리법면혼합종은 1회 파종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경관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면, 나대지 등의 대면적 조경은 물론 짜투리 땅 등의
소규모 경관조성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알맞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면의 계절별 다양한 풍경변화!



 **문의전화: 031-634-7990 대량구매~소량구매 가능**

Gardenin
Design

Gardenin
Horticulture

Gardenin
Tip

Gardenin Design

- 6 먼 길을 돌아 산책을 하다'
- 14 11월의 영국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
- 18 Colour in the Garden
- 24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도시정원문화
- 28 휴식의 정원을 만드는 부부
- 34 정원 '속보이네'

Gardenin 가을정원

- 38 정원사의 일기
- 46 우리꽃의 시루정원을 말하다
- 52 흥대 무대륙 옥상텃밭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
- 56 류체의 정원 가을 구근 식재
- 58 특집기사 - 추석구근 정원을 디자인하다
- 62 새로운 정원을 만드는 시간
- 65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 72 미국의 추수감사절

Gardenin Horticulture

- 75 수직공간을 자유롭게 부착형 화분 어떠세요?
- 79 가든인 Tip Q & A
- 82 향아리뚜껑으로 만드는 이끼정원
- 84 안양도시농업한마당 축제를 마치며
- 90 정원문화포럼 창립총회
- 92 안완식박사의 도시농업 -
영양과 약효가 뛰어난 맛의 조절사 파
- 96 한국의 전통과일 밭
- 102 청어 - 나도 숲속 예술가

Gardenin Information

- 106 BOOK & FESTIVAL
- 108 GARDEN & MOVIE
- 110 11월의 축제

먼 길을 돌아 '산책을 하다'

-영국 정원 기행-

글/ 사진 천리포수목원 식물팀 민 호 정

정원, 비움과 배려 나눔의 문화를 배우며

풍성한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지난 추석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가볍게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 2년차 오빠네 부부가 가사도움, 맞벌이, 육아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서운한 마음에 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다. 이때 필자의 바깥방반이 나서서 말하기를 “저희는 함께 산책을 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을 보고 후 하고 알게 모르게 숨을 쉬고 말았다.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 부부에게 산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뜨는 해와 붉게 물드는 노을까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천리포수목원에서의 나의 하루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만 남고 명절의 모임은 일단락되었다.

식물 가까이 살고 싶어 삶의 터전까지 옮겨 수목원에서 지낸지 2년여가 넘어간다. 지난여름 작은 행복이 더해져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수목원에서 일을 하고 지내는 필자에게는 업무 시간도 하나의 산책이지 싶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라고 해서 걸음을 재촉할 필요 또한 없다. 이 일상에서 벗어나 영국에서 보낸 8일간의 기행은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느끼게 견고 온 것이라 말하고 싶다. 정원을 들어서는 순간 머릿속이 비워지는 감정이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는 것은 그 곳에서 만난 행복한 사람들과 정원을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정원에서 본 비움과 배려, 나눔, 그리고 전통과 문화를 다시금 정리해 본다.

햄튼 코트 팰리스 정원의 대형포도당굴



햄프턴 코트 팰리스
Hampton Court Palace

햄튼 코트 팰리스 정원의 대형포도당굴

햄튼 코트 팰리스정원 잔디화단 경계

비움과 배려에서 시작된 정원

‘느림을 사는 자만이 비울 수 있고
비운 자만이 느림을 누린다!’

정원을 가꾸는 이들에게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묻는다면 식물(Plants), 길(Path), 조형물(Objects), 경계(Edging), 공간(Space) 등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것이다.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정원에도 이미 많은 요소들이 속속 들어 앉아 있다. 영국 정원도 우리 내 정원들과 비슷하겠지만 이들 정원에는 공간과 공간 사이, 식물과 식물간의 간격에서 오는 여유와 느림을 느낄 수 있다. 흔히 영국인들을 ‘꽃과 정원의 문화’라고 할 정도로 식물을 좋아하고 개인 정원을 가꾸는 습관 또한 일품이다. 이들의 행복한 일상은 정원에서도 묻어난다. 런던 도심 속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5천여 평의 ‘비밀의 정원’ 첼시 피직 가든(Chelsea Physic Garden)에는 정원을 바라보며 오후의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이 정원을 꼭 덮어 있다. 뽀뽀하게 자라난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없어도 알맞게 자란 나무들이 정원의 역사를 이야기 해주며 공간 마다 자리한 화단(Bed)은 사방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여러 초화류가 심겨 있다. 작은 정원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오래된 작은 건물에서는 교육과 체험이 함께 이루어진다.

길을 따라 만들어진 울타리는 식물의 키를 낮추는 대신에 다양한 소재(식물의 종류)를 사용하여 그 재미를 더함으로



첼시피직가든의 숲체험을 돕는 교육 가이드



첼시피직가든 정원사

첼시가든
Chelsea Physic Garden



첼시피직가든 교육, 체험 공간



첼시피직가든 카페



첼시피직가든 Bed 경계

써 좁은 공간을 배려한다. 1701년에 그려진 스케치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1995년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쳐 정원의 모습을 되찾은 햄프턴 코트 팰리스(Hampton Court Palace)에는 유명세를 타고 있는 Great Vine(대형 포도덩굴)가 있다. 1768년에 조경사 브라운이 심은 포도덩굴이 자리한 작은 온실 내부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유리벽을 설치해 놓았다. 포도덩굴의 위엄에 반하고 나오면 온실 앞에 널따란 맨 땅이 펼쳐

진다. 포도나무 지상부가 차지하는 면적의 몇 배는 되어 보인다. 그 앞에는 사람 키만큼 한 높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글씨의 팻말이 꽃혀 있다. 포도나무의 뿌리를 위한 공간으로 수분과 영양분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식물을 심지 않고 유지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정원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그 안에 살아가는 식물들을 위한 비움의 공간에서부터 정원은 시작되고 있었다.



큐가든 (Kew Gardens)

큐가든



큐가든 정원사

치유와 교육, 체험이 일상이 되기까지

숲 체험. 캠프란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숲 학교 까지 생겨나고 있다. 작은 마을에까지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어 감에 따라 숲은 그에 밀려 나는 반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천리포수목원도 캠프와 체험, 전문가를 위한 심화과정 까지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몇 있다.

영국 정원을 거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식물과 함께 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마라톤을 하듯 보고 또 봐야 할 만큼 정원 면적은 넓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 큐 가든(Kew Royal Botanic Gardens)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5월부터 많은 체험과 행사가 기획/전시되고 있었다. 식물의 다양성과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을 목적으로 하는 PLANTASIA 행사는 곳곳의 정원과 온실에서 해설과 함께하고 있다. 빅토리아 광장에서 만난 예쁜 모자에 앞치마를 두른 정원사는 우리에게 이로운



큐가든 나무 뿌리 의자

식물들의 모형을 가득 실은 카트를 세우고 각각의 식물성분이 가진 치유력과 영향력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1673년 영국 약제회에서 식물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첼시 피직 가든은 영국 토산식물 뿐 아니라 인디언, 마오리족, 중국 및 남미부족 등이 사용한 약제식물과 독성식물을 구역별로 심어놓아 식물학이나 가드닝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견학 코스로 인정받고 있다. 입구에서 건네받은 「Family activities At a glance calendar 2014」 팸플릿에는 식물의 기본 강의에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5월부터 10월까지 기획되어 있었다.



큐가든 팜하우스



큐가든 팜하우스



큐가든 Materia Medica를 설명하는 정원사



위슬리가든

정원에 숨겨진 소재를 찾아서

천리포수목원이 첫 삼을 뜨던 시절부터 그 나무들이 자라 숲을 이룬 세월을 산 오랜 경력의 가드너가 말하길 '삼 한 자루면 못 만드는 게 없다'고 했다. 나 역시 가드너가 되고자 마음먹고 수목원에서 실습을 하던 시절 제일 먼저 접했던 도구 역시 삼이었다.

그 외에도 전정가위, 톱, 갈퀴 등 정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품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에서 만난 가드너들의 작업복과 도구들은 그 종류와 크기가 대단히 다양했다.

정원 내에 있는 Book & Gift Shop에서는 식물종류별 전문 서적들이 어느 도서관 못지않게 판매되고 있어 전문 분야가 따로 없어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여 볼 수 있다.

런던 근교 정원에서 가장 크고 구비된 물건의 종류가 많다는 위슬리 가든(Wisly Garden)은 정원을 입장하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물에 가든샵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 정원을 가꾸는 영국인들은 이곳에서 식물 관련 책을 읽고 정원에 사는 곤충들의 집을 장만하고 식물을 위한 각종 퇴비와 작물보호제를 구입한다. 이 작업들을 위한 도구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도 주어지니 이 보다 더 부러울 수가.

21세기 신 개념 숲 속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으로 유명한 사빌 가든(Savill Garden)에서는 큰 나무들 사이로 자리 잡은 화단의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 눈에 띈다.

위슬리가든
(Wisly Garden)



위슬리가든



위슬리가든 정원용 도구

위슬리가든 가든샵



위슬리가든

위슬리가든
(Wisly Garden)



위슬리가든



위슬리가든

안쪽에 자리한 식물들까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느다란 철재는 10만평의 정원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식물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된 식물표찰과 안내판에서도 그들의 꽃과 정원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식물과 정원에 조화롭고 그에 유익할 소재를 찾아 연구하며 상품으로 개발하기 까지 이 모든 것이 영국 정원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우리에게도 정원을 위한 쇼핑 타임이 필요하리라.



사빌 가든
(Savill Garden)

▲ 사빌가든

◀ 사빌가든 화단경계물



▼ 사빌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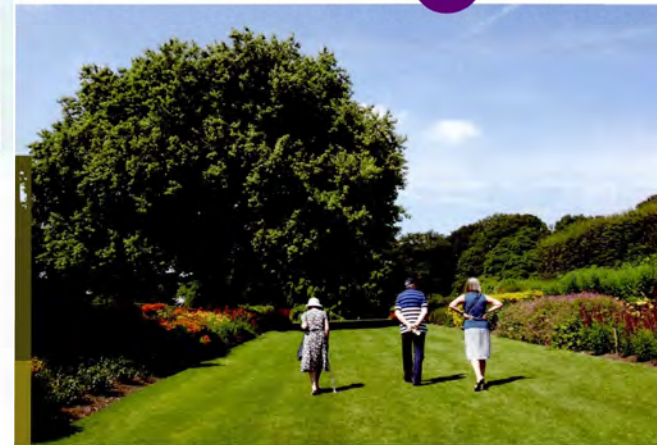
정원을 창작하는 이들

8일 동안 두 발로 부지런히도 느리게 걸었다. 큰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작은 정원들을 산책하며 공간과 공간이 바뀔 때 마다 그 속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공휴일에 방문한 사빌 가든에서는 가드너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Green Shop(식물판매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친구에게 예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작은 정원 첼시 피직 가든에서는 어린이들의 숲 체험을 돕는 교육 가드너와 채소정원(비타민 가든)에서 일하는 가족장화가 멋진 정원사도 만났다. 각 정원 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후원제도와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식물 해설 및 정원의 역사 해설사가 있어 다양한 설명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사빌 가든
(Savill Garden)

사빌가든



사빌가든

영국 왕립협회가 운영하는 정원으로 원예사, 정원사를 길러내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관인 위슬리 가든에서는 이동 하는 정원마다 팀을 이루어 일하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2007년도에 완공된 위슬리의 온실 내부에는 식물 안내도 옆에 Glasshouse Team에 소속된 팀원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전문 분야와 맡은 업무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창작하는 정원사가 있어 식물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시간이 전통과 역사로 남는다.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산책하고 돌아왔다. 비움을 통한 공간에서 나무와 정원사의 배려를 보았고, 숲에서 보내는 일상이 오랜 전통이 되어버린 그들의 문화를 느끼기에 그 시간은 충분했다.



11월의 영국 에덴 프로젝트(Eden Project)



손관화교수

천안연임대학 화훼디자인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가드닝 전공) <http://sohn.yonam.ac.kr>

에덴 프로젝트는 영국의 남서쪽 콘월(Cornwall)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과 온실 주변의 정원이 다. 1993년 영국 정부는 복권사업단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에덴 프로젝트는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로 콘월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광을 생물권 실험실로 만들고자 한 계획에 8천5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1997년에 착공되어 2000년에 개관된 곳이다.



에덴 프로젝트는 런던에서 멀기 때문에 기차비도 비싸고 썩 내키질 않아 감까 말까 망설였는데 영국을 떠나야 할 때 즈음 11월 말에 갑자기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영국의 기차비는 항공권처럼 예약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인터넷으로 계속 체크하다 저렴한 밤 기차 표를 구입하였다. 런던 패딩턴역에서 4시간 4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가면 세인트 오스텔(St. Austell)역에 도착한다.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에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정원 중심에 거대한 반구형 유리구조물인 바이옴(biome, 생물군계) 온실 6개가 연결되어 있다. 온실은 다양한 기후에 따라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접목해 디자인되었다. 온실은 지중해식물구역 3동, 열대우림구역 3동으로 워낙 규모가 큰 온실이라 유명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데 내가 방문한 11월의 초겨울 날씨에도 관광버스가 여러 대 와 있었다.



반구형 구조물은 깔끔하게 건축되어 있는데 내부의 열대우림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았으나 지중해식물 구역은 식물의 특성상 비교적 색다른 느낌을 주는 편이었다. 초겨울이라 실외 정원의 꽃들이 다 저버렸기 때문에 정원의 화려함이 없었고, 망설였던 만큼 약간 후회를 했었지만 다녀왔다는 것과 홈페이지와 현장을 통해 에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부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업적 정원들이 갈 길을 보는 것 같았다.



입장료와 그리고 음악과 예술 이벤트, 교육, 어린이 놀이 세션, 워크숍, 스포츠, 정원 투어,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물공장, 건강식물을 이용한 카페와 레스토랑,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결혼식 또는 회의 장소 대여 등 많은 행사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도자기 원료인 흙을 제공하던 버려진 폐광 위에 세워진 에덴 프로젝트의 의미와 규모가 큰 온실이라는 것 외에는 11월이라 시각적으로 돋보이지 않았고 외국인이라 깊은 진가를 잘 느끼지 못한 것 같다. 11월의 정원을 둘러보면서 '꽃이 없는 정원(flowerless garden)'이란 표지판이 붙은 한 구역에서 잎이 파란 고사리류, 목본고사리, 속새, 석송(clubmoss), 물부추(quillwort) 등이 가득 자라면서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꽃이 피는 식물로 진화하기 전 정자가 물을 통해 난자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번식하던 식물이 주축이 된 정원이다.



겨울이 아니면 실외에서 소풍 온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아도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가든이 더 좋은 것 같다. 관광버스로 온 사람들이 가든센터에서 상품을 많이 사는 것 같다. 상업적인 정원마다 가든센터는 필수적인데 방문자가 많은 곳이라 가든센터의 규모가 큰 편이다.

에덴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edenproject.com/>



ORANGE



Wisley Garden

오렌지칼러는 빨강의 열정의 이미지와 화사한 노랑의 이미지를 골고루 갖춘 색이다.
 오렌지 칼러를 가진 한련화와 메리골드는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꽃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텃밭에 심어 별레를 퇴치하는 꽃으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오렌지 칼러는 주로 여름 정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우리의 눈과 미각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의 상큼함이 그대로 정원의 곳곳을 물들인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꽃에서부터, 텃밭에 심는 별레퇴치용 꽃
 그리고 감이나 오렌지처럼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에 이르기까지 오렌지 칼러의 이용은 무궁무진하다.
 오렌지의 매력을 고스란히 정원에 담아 보자.

오도
 풀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이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Orange



오렌지 칼러는 태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Wisley Garden)



오렌지 칼러는 태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노란색이 태양을 의미한다면, 오렌지색은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오렌지의 열매를 만들고 1년 내내 태양 빛을 받아 가을의 끝에 골과 감으로 우리 광주리를 가득 채운다. 오렌지색은 결실의 색이기도 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 칼러를 가까이에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다.



오렌지 칼러는 더운 여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색이다

여름정원을 건다보면 파랑색과 흰색의 꽃들이 주로 눈에 들어온다. 더운 여름을 식혀 주기 위한 연출이다. 하지만,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해 주는 빨강과 노랑사이에 오렌지 칼러를 섞어서 더운 느낌을 따뜻하면서도 상큼한 이미지로 바꿔주기도 한다. 빨간색의 물감에 노랑을 섞어 물을 타고 흐르는 듯한 오렌지색의 부드러움을 정원을 통해 연출해 보자.

오렌지칼러는 더운 여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색이다
(Hestercombe House)



오렌지칼러는 가을에 끝에서 겨울로 이어주는 색이다 (Sheffield Park Garden)

오렌지 칼러는 가을에 끝에서 겨울로 이어주는 색이다

가을의 멋은 역시 단풍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온갖 신비로움이 단풍잎 한 장에 고스란히 녹아내린다. 초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오렌지로, 오렌지에서 빨강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색들이 존재한다.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 오렌지 칼러의 신비로움으로 겨울의 문턱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사진에 나온 주황색의 가지는 말채나무 종류의 키 작은 나무이다. 흰색에서 노랑, 주황,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 중 주황색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 흰 눈이 내리더라도 하면 그 아름다움이 두 배가 된다.

1. 오렌지색과 흰색의 어울림

순백의 팬지를 배경으로 오렌지색의 튤립이 하늘을 향해 뭉실뭉실 피어나는 느낌이다. 팬지와 튤립의 조합은 봄 화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두 가지 꽃이 가지는 색상의 어울림 또한 무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너무나 깨끗한 팬지와 자칫하면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튤립의 아름다움은 파란 잔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눈이 부신다.



오렌지색과 흰색의 어울림(Front of Palm House New Garden)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Hampton Court)

2.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

오렌지색의 크로코스미아(Crocsmia)가 노란색의 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둘 다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름 화단의 강렬함을 더욱 강하게 연출하고 있다. 두색의 강렬함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버베나 보나리엔시스(Verbena bonariensis)의 보라색을 섞는 세심함이 보이기도 한다. 보일 듯 안보일 듯하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라색은 오렌지색과 노랑의 반대편에 있는 보색이기 때문에 조금만 섞어도 눈에 잘 들어오는 효과가 있다.

3. 오렌지색과 초록의 어울림

노랑, 빨강, 크림,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는 한련화는 텃밭에 심으면 진땀을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한련화의 잎은 연임을 달아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다. 양배추 잎은 청색이 들어간 짙은 녹색이지만, 한련화는 밝으면서도 깨끗한 색의 초록색이기 때문에 한련화의 다양한 꽃의 색을 무리 없이 소화시킨다. 특히 오렌지색의 한련화는 전체 이미지를 밝고 선명하게 해 준다.



오렌지색과 초록의 어울림(Kelie Castle Garden)

4. 오렌지색과 브라운의 어울림

질은 오렌지색과 노랑 그리고 분홍색의 헤메로칼리스(Hemerocallis)가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있다. 한여름의 화단에서만 볼 수 있는 헤메로칼리스의 매력은 뒷 배경으로 브라운 색의 차조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차조기의 질은 브라운과 가까운 곳에는 역시 질은 오렌지색의 헤메로칼리스가 오고 그 앞으로 노랑과 분홍색으로 이어진다. 맨 뒤쪽으로 피어있는 흰색의 국화가 차조기의 어둠 지만 충분한 빛깔을 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노랑, 분홍, 오렌지, 브라운, 흰색의 색상에서의 주역은 단연 오렌지색일 것이다.



오렌지색과 브라운의 어울림(Hampton Court Flower Show)

5. 오렌지색과 파란의 어울림

오렌지색 백합과 파란색의 델피니움(Delphinium)의 조합이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 두색의 조합은 영국의 정원사인 거츨루드지킬(Gertrude Jekyll)만이 소화시킬 수 있는 색상일 것이다. 오렌지색과 파란은 보색의 관계로 정반대 되는 색이다. 거츨루드지킬이 디자인한 헤스터콤브 하우스(Hestercombe House)의 메인 정원에서만 볼 수 있는 과감하면서도 역동감있는 배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렌지색과 파란의 어울림(Hestercombe House)

6.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

철쭉이 피는 5월, 철쭉은 흰색에서부터 짙은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색깔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랑과 오렌지색은 가장 비슷한 색이기도 해서 어떤 꽃의 종류라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서로의 색을 빛나게 하면서 따뜻한 봄날의 산책길을 밝게 비춰준다.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Murrehead Wood)

오렌지색 정원에 어울리는 꽃들

COLOUR IN THE GARDEN-ORANGE



Cornus sanguinea 'Midwinter Fire'



Heuchera 'Carmel' (L. 2000-01-01)



Pyracantha 'Golden Princess' (L. 2000-01-01)



Pyrus 'paedalis'



Primula 'imperial' (L. 2000-01-01)



Crocosmia 'Lucifer' (L. 2000-01-01)



Desfontainia 'spiosa'



Erysimum 'cheiri' (L. 2000-01-01)



Helianthemum 'sp.' (L. 2000-01-01)



Helianthemum 'Hendfield Brilliant' (Wisey Garden)



Kalanchoe 'manginii'



Eranthis 'Brown's Dropmore Scarlet'



Narcissus 'eye'



Narcissus 'Jettie'



Salvia 'officialis' (L. 2000-01-01)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도시정원문화

2013년 4월 20일, 땅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생명력의 결실인 꽃과 나무가 문화로 조성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다.

정원박람회는 다른 산업분야의 박람회와 달리

유기적 생명체들로 만들어진 박람회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박람회장이 점점 자연의 체대로 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큰 매력이다.



글/사진 김 홍 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연구소(주)
건축/조경/생태복원기사, 우리궁궐길라잡이
<http://blog.naver.com/hongdoiry>

정원 박람회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가?

정원박람회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우수한 꽃에 대한 경연대회를 여는 화훼축제에서부터다. 19세기 들어 원예협회가 여러 지역에서 생기면서 원예식물 종의 다양성도 증대되었다. 1804년 영국왕립협회가 설립된 이후 협회 주관으로 1827년 치즈워 페트라는 원예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고, 1851년 영국의 만국 박람회 이후 원예와 정원이 박람회의 주제로 등장하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번성하였다. 이후 유럽 각국의 정원박람회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과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특유의 정원 문화 축제로 발전하였다. 각각의 전시회는 나라와 지방성을 살려가는 발전을 추구하면서 복합적인 문화산업을 추진해왔다. 정원이란 공간과 원예라는 식물 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을 정원 박람회를 통해 각 국가의 도시 낙후지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순천정원박람회의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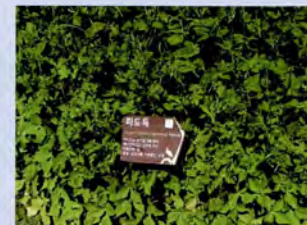
순천 호수정원

순천정원박람회장을 동문을 들어서면 순천호수정원이 눈앞에 펼쳐진다. 나선형의 동선이 녹색 언덕을 타고 오르는 한 편에는 순천호수정원 남북을 연결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parametric design)의 브릿지(bridge)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곳을 디자인한 찰스 쟁크스(Charles Jencks)는 순천의 자연과 문화, 산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시각적 전략인 'Holding the Eco-line'을 제시했다. 순천의 도시 영역이 순천만으로 향하여 하나로 연속되는 생태 경관을 만든다는 개념을 담았다고 한다.



약용 식물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약용식물원은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모아 소개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방의 약재이자 옛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던 약용식물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게 조성되었다. 평소 보기 힘들었던 식물도 있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정원

순천정원박람회장 동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붐볐던 곳이 세계 곳곳 정원의 특징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세계 정원' 구역이었다. 중국정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정원, 독일정원, 네덜란드정원, 미국정원, 스페인정원, 이탈리아정원, 영국정원, 일본정원, 태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10개국의 나라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다양한 정원의 형태나 소재,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자 했던 기획은 좋았으나 영국하면 픽처레스크식(자연풍경식)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스페인하면 정말 대표적인 알함브라 궁전에서 보여 지는 아름다움과 스페인의 정서가 묻어나는 정원 공간 문화의 재현에도 미치지 못한 채 그저 오랜치나무를 줄 지어 심고(열식, 列植), 바닥에 수경시설만 조성한 것은 오히려 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실망이자 제대로 스페인 정원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네덜란드정원



네덜란드정원



일본정원



일본정원



중국정원



중국정원



태국정원



태국정원



스페인정원



영국정원



프랑스정원

실내정원과 한평 정원 경연대회 참가작

순천정원박람회장 동문 앞에 위치한 실내정원은 국내·외 정원 디자이너가 선보인 정원부터 우리나라 전통온실에 대한 소개와 모형 등 아기가장한 정원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직접 정원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관람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앞으로 정원 박람회장에 조성되는 정원들은 정원 디자이너의 의도와 공간 연출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실내정원



실내정원을 나와 세계정원과 바위 정원으로 나아가는 길가 한편에 설치되어 있던 한평 정원 경연대회 참가작들은 전문 정원 디자이너 작품은 아니었지만 각자 자신들만의 정원 디자인 개념과 이야기를 담아 아기가장하게 만들어 낸 것이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게 여겨졌다.

>> 한평 정원 경연대회



한국정원

필자는 오래전부터 한국 전통건축과 정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순천정원박람회에서 가장 궁금했던 곳이 한국정원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던 만큼 여유롭게 둘러봐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장에서 마지막 답사 장소로 정해놓고 움직였다. 방문하기 전 언론에서 한국정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의 오래된 정원 풍경을 옛 느낌 그대로 재현한 정원이고,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소망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한국 고유의 정원 특징을 살려서 조성하고자 했다고 했다.

한국정원을 들어서서 한번 둘러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정원 문화를 이해하고 디자인했을까', '한국정원하면 창덕궁 후원, 담양 소쇄원, 영암 서식지, 보길도 세연정 등과 같은 사례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중국과 일본정원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코드로 정원문화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남았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한국정원이 우리 전통 정원문화에 대한 고찰 없이 형태만 모사했던 것에 그치고 있는 점은 이번 박람회에서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정원 조성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정원문화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향유되고 있지 못한 채 정원 문화를 축제나 일시적 이벤트성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도시 주거환경이 아파트라는 공동주거가 점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 전통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 없이 그저 형태적 모방만 답습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맺음말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남긴 도시정원문화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400만 명을 넘어서는 관람객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다녀갔다.

순천시에는 남겨진 정원박람회장은 도시가 순천만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방지한다. 또 순천만과 연계하여 생태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도시정원문화를 생산해내는 창조적 녹색문화의 발생지가 될 수 있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경과 원예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정원 문화보급에 필요한 콘텐츠와 인력 양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올해 순천시는 프랑스 쇼몽국제가든페스티벌 사무국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박람회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Eco-텃밭정원'을 개장하여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도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녹색문화로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 순천은 정원박람회로 일시적 축제의 브랜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문화, 환경의 건강한 성장과 도시재생과 문화협력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정원문화 보급의 메카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휴식의 정원을 만드는 비법



한승연(59) 차두현(62)
글 사진 / 우정아



영국의 cottage garden을 연출한 휴식의 정원 풍경

공간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정원공간의 연출은 식재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주말의 휴식공간, 정원 터를 찾아가며,

충청남도 당진시 삼선산 자락에는 한승연, 차두현씨 부부가 꿈을 그리고 있는 정원이 마을 안쪽으로 자리잡고 있다. 650(2150m²)여 평에 매화, 남경화, 메이플, 라일락, 산딸나무, 겹꽃나사, 장미, 넝쿨장미, 박태기, 조팝, 때죽나무, 병꽃나무, 자목련, 박태기, 배롱나무, 명자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뽕나무, 구썸뽕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왕대추나무, 감나무, 체리, 수퍼블랙베리, 비타민나무, 무화과, 살구나무, 자두나무, 오가피, 구기자 등 목본류와 구절초, 쑥부쟁이, 디기탈리스, 루피너스, 클레마티스, 데이지, 사스타, 초롱꽃, 백합, 패랭이, 아이리스, 양귀비, 향달맞이, 작약, 매발톱, 복수초, 노루귀, 석산, 붓데리아, 범의 꼬리, 범부채, 수련, 연꽃, 부레옥잠 등이 식재되어 산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주말의 반을 보내고 이곳에서 나머지 반을 마무리하는 주말의 휴식 공간이다.





어릴 때 시골 집 마당과 산과 들을 뛰어 놀던 기억에 서울에서도 주택을 고집해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고 살았는데,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정서의 메마름이 그리움으로 변해 다시금 제 2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터를 잡기 위해 11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곳을 보고 다녔지만, 좋은 곳이면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싸고, 예산에 맞추려니 마땅한 곳이 없었던 중에 2009년 모든 조건이 맞고, 햇빛이 잘 들고, 산세가 수려해 부부에 눈에 든 곳이 이곳이다. 산나물 동우회에 활동으로 식물의 기초 지식을 쌓고, 틈틈이 책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 둔 것이 정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다. 하지만 정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의 땅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 터를 잡고는 2년의 결혼식과 1번의 환갑 여행을 제하고 모든 주말은 이곳에 시간을 투

자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행착오가 가늠치 않다.

처음에 논 이었던 터에 먼저 집부터 짓고, 흙을 복토한 후에 정원을 조성하였으나, 논이었던 자리에 진흙의 찰진 성분이 식물의 뿌리가 썩게 하거나, 뿌리 내림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해 대부분의 식물의 성장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두서없이 시작한 정원의 시작은 몇 번의 실패 후, 전면 재조정해 축대를 쌓고, 황토와 산 흙을 섞고 비료 충분히 넣어서, 새로운 땅부터 만들고 비로소 탄생한 곳이라 한다. 조성한 정원을 백지화하고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손도 많이 가고 험도 드는 일이었지만, 지금의 정원을 보면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완성된 정원의 수경정원



연못가의 Water lily, 칸나

자연에 동화하는 사람들에게 묻어나라.

주중을 서울에서 보내는 주인장은 서울 사람이라고 달리 보는 마을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먼저 자세를 낮추고, 마을 사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나 수확물의 판로를 연결해 주고, 품앗이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면, 몇 일이라도 비었던 집에 들어 가려면 심란하며, 장류와 김치를 싣듯 퍼 줄 정도로 가족같이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정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흙을 가꾸는 것

정원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을 만드는 일이다. 특히 주인장은 계분과 돈분을 쓰임새에 따라 분리하여 각각 잡초와 함께 1년 이상 숙성시켜 흙과 섞어서 식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쓴다. 계분은 간단한 체소나 초화류에, 돈분은 나무 밑거름으로 주로 사용한다고 했다. 계분이나 돈분을 잡초와 부숙시키면 비료와 더불어 토양 개량제의 역할도 하는데, 물리성 개량, 양이온 교환능력 증대, 유해성분 흡착, 미량요소의 유효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먼땀을 준비하는 모습

완성된 정원의 수경정원 완성

식물의 자생지/ 원산지를 고려하여 식재 할것

식물 관리는 자생지의 기후를 고려해 비슷한 환경에 식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미리 파악한 지식으로 파종과 삼목을 통해서 번식을 시키는데, 비닐 하우스의 관리는 일반 스프링클러에 타이머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관수되기 때문에 주중에 일부러 내려가서 관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준 고마운 친구라고 한다. 또 새로운 품종들은 종묘상 책자를 보고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 간편하게 식재하는데, 무료로 나눠주는 종묘상의 책자는 보편화된 식물의 사진과 함께 식물의 보통명과 학명, 특성 등이 설명되어 있어서 식물을 보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



정원은 "휴식의 공간"을 창출하는 "창작 활동의 공간"

주택 뒤 편에 자리한 주인장의 목공 작업실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탄생되고 있다. 정원의 조성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주문 제작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독학으로 목공을 공부했다고 한다. 정원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만든 것이라고는 믿기질 않을 정도의 솜씨의 파고라, 테라스, 벤치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정원을 한층 더 정갈 있게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요즘은 좋은 곳에 난다며

경시 구경하러 놀러 오셨던 분들이 우리 집 정원을

부러워하며 하나 둘 근처에 터를 잡아 도리어 서울에서보다

더욱 왕래가 많아졌어요 식물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주지만,

그 중에 으뜸은 사람과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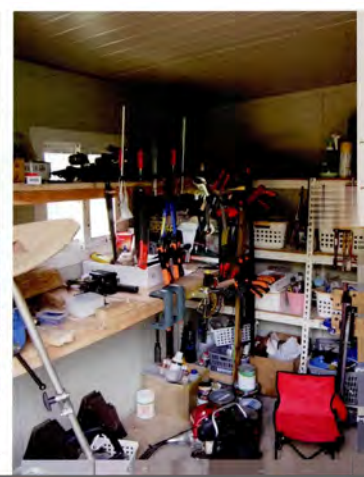
좋은 인연이 된 분들이 저희 부부에게 고맙다고 하는 한마디는

큰 힘이 되고, 정원의 열매나 채소는 건강의 저림과 함께

나눔의 소중한으로 번지게 합니다."



부부 정원사의 휴식정원에서 담소하는 모습





아우브리예타속 (Genus Aubrieta)

우리의 꽃다지와 같은 이른 봄 피어나는 아우브리예타는 겨울에도 상록성이며 추위와 건조에도 강한 작은 식물로 카펫나 꽃방석을 형성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12종의 속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의 돌과 덩불이 형성되는 곳의 사이, 그리고 침엽수림에서도 발견된다. 이들은 작고 두꺼운 잎을 가지며 거꾸로 세운 달걀 모양에서 타원형을 이루는 잎은 얇은 물결 혹은 톱니 형으로 마니가 짧게 밀생한다. 거친 털이 있고 조밀한 품을 형성해 꽃이 없는 계절에도 아름답고 특히 봄가을로 더욱 아름답다. 꽃을 피우면서 절정으로 경관을 이루는데 십자모양의 4개의 꽃잎을 가진 꽃으로 우리의 꽃다지와 많이 크게 보면 유채꽃과도 많이 닮았다. 다양한 꽃색을 지녔고 품종도 많아 다양하게 이용 가능하다. 주로 암석정원에 많이 이용하고 다년생 화분의 환한 식재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며 외국에서는 돌담의 벽면녹화에도 많이 이용된다. 우리의 돌메지용으로도 안성맞춤인 식물이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상록으로 겨울에 유지 되므로 유리하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숨겨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물이 속한 '속'이 있고 '학명'이 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재배는 적절히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가끔적이면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에 심는 것이 좋고 햇빛이 좋은 양지에서 기른다. 개화 후 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꽃대를 정리하고 일부 줄기를 다듬어 주는 것이 좋다.

가을 혹은 봄에 파종을 하고 재배식물에서는 종자 결실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번식은 주로 삽목을 하는데 이른 봄 겨울을 난 줄기를 잘라 삽목하거나 봄꽃을 피운 후 자란 연한 녹색의 줄기를 잘라 물 빠짐이 좋은 상토에서 실시한다. 가을에 분주를 간혹 하지만 삽목에 의한 것 보다 성공적이지 못하다.

진딧물, 선충, 벼룩 같은 딱정벌레 등의 피해가 있고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가 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 이후에 잘 녹을 수 있으나 물 빠짐에 주의 하고 장마기 이후 갑자기 오는 가뭄에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우리니아 속 (Genus Aurinia)

아우리니아 속도 아우브리예타 속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십자화과 식물이다. 7종의 덩불을 형성하는 이 다년생 식물 혹은 목질을 이루는 상록 다년생 식물의 Alyssum(알리섬)의 일종에 속하는 속으로 중앙아시아, 남유럽의 산악지대, 러시아의 동쪽과 터키에 등에서 서식한다. 이들은 털이 있는 로제트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무수히 많은 가지와 꽃을 내어 피어난다. 4개의 꽃잎을 가진 십자화과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꽃으로 덩불모양을 형성한다. 흰색이나 노란색의 꽃이 모여 나고 원추형의 꽃차례를 이룬다. 이들은 암석정원, 화단의 앞부분 혹은 빛이 잘 드는 돌 축대 등의 메지용으로 좋은 식물이다.

내한성이 뛰어나고 잎이 은회색을 띠는 속으로 매년 종자를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개화 후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이들 또한 장마에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물 빠짐이 좋은 곳을 선택한다.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있다.

베고니아 속 (Genus Begonia)

베고니아 속은 너무 많아 분류하기도 매우 힘든 정도로 다양하다. 900여 개의 종과 다양한 특성을 이루는 다육성의 일년생, 여러해살이, 혹은 상록의 관목성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다육, 다즙 식물과 착생, 기생 식물을 포함한 덩굴성 식물 등이 포함된 나무도 다양한 종류를 갖는 속이다. 대략 위도 15° N과 15° S 사이의 열대지방과 아열대지방에 넓게 퍼져 생육한다.

베고니아는 서식처에 따라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뿌리는 수염뿌리, 지하경이나 구근일 수도 있으며 덩이줄기는 겨울에 발육 정지 상태가 되기도 한다. 많은 종은 색이 화려한 꽃 때문에 길러지고 다른 종들은 잎이 장식적인데 잎은 어긋나고 좌우가 같지 않으며,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형태의 무늬 및 형태의 다양한 때문에 기른다. 보통 꽃은 잎 사이에서 줄기를 내어 낚시 줄 모양 매달려 피어나 한차례 고개를 충상 꽃차례에 암수 두 성을 모두 지닌 채 동일한 개화시기에 핀다. 2~4개의 같지 않은 꽃잎을 갖고 있는 수꽃과 2~6개의 같은 꽃잎을 가지는 암꽃이 있다. 서리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 지역은 집이나 온실에서 베고니아를 기르고, *B. semperflorens*와 *B. tuberhybrida* 그룹은 여름 화단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의 베고니아는 비교적 습한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역의 실외 화단과 화단의 테두리에 적합하다.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베고니아의 재배 방식은 종류에 따라 7개의 약식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내한성은 매우 약해 대부분 약한 서리에도 쉽게 고사한다. 10월 말 서리가 오기 전에 온실로 대피시켜야 한다. 대부분 온실에서 밝고 배수가 잘 되는 중성에서 약간의 산성에 잘 자란다. 직사광선이 드는 온실에는 차양이 있는 밝은 빛 아래서 기른다. 성장 중에는 물을 적절히 주고 겨울에는 적게 주며, 심어놓은 화분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야 한다. 식물이 완전히 자랐을 때는 물을 줄 때 2회에 1회씩 균형 잡힌 영양제(액체 비료)를 준다. 일년에 한 번씩 화분을 갈아주고 성장의 최적 조건을 위해서는 적당한 습도와 함께 온도를 19~23℃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특히 건조한 토양에서는 10℃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고 잎을 떨어뜨린다.

다육조직의 베고니아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토양과 더 매우 밝은 양지와 좀 건조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B. imperialis*와 *B. pustulata*를 포함한 가장 작은 베고니아는 실내 재배용으로 유리용기의 산광과 높은 습도에서 잘 자란다. 옥외에서는 베고니아를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부식토에 심어 주는 것이 좋다.

증식은 이른 봄 21℃ 이상이 되는 온실에서 종자를 뿌리고 줄기, 새 눈, 잎꽂이를 봄이나 여름에 그들이 조금 드는 모판에서 실시, 뿌리를 내린다. 지하경을 여름에 분해하여 자른다. 축축한 이끼가 있는 토탄의 표면에 주아를 뿌린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모충, 벧나무깍지벌레, 진드기, 삼주벌레, 진디, 민달팽이, 달팽이, 줄기 부패, 지하경 부패 병에 약하다.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

가드너 김시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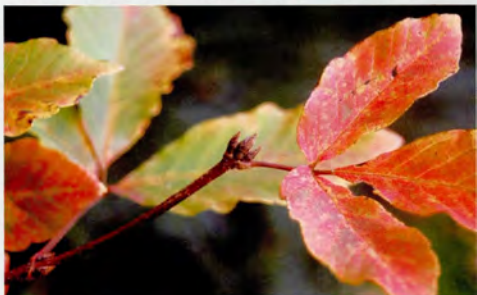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11월의 가을 경관을 장식하는 건 누가 뭐래도 가을 색(Autumn colour)일 것이다.
색은 꽃, 잎, 열매 등 보는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앞에서 볼 수 있는 가을 색을 알아보기로 한다.

식물의 잎에는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크산토펜, 안토시아닌, 탄닌 등의 색소가 있다.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는 햇빛의 녹색파장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만들어 낸다. 햇빛의 세기나 양 등이 줄어들고 추워지게 되면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가 점차 줄어들게 된다. 잎이 단풍이 드는 이유는 엽록소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주황 색소인 카로티노이드와 노랑 색소인 크산토펜과 붉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앞에 나타나게 되며 단풍이 든다. 그리고 잎자루에 떨어져 층이 발달하고 양분의 이동을 막으면서 겨울을 준비하게 된다. 마지막에는 갈색 색소인 탄닌이 활동하게 된다.

>> 일본복자기(Nikko maple) *Acer maximowiczianum*



일본과 중국 중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3개의 소엽으로 된 복엽이며, 털이 있고 뒷면은 분백색을 띤다. 추위 견딜성이 높다.

>> 은단풍(Silver maple) *Acer saccharum*



북아메리카 동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중간정도 5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은 분백색을 띤다. 빨리 크게 자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이 보기에 좋다.

>> 꽃단풍(Red maple) *Acer rubrum*



북아메리카 동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얇게 3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은 분백색을 띤다.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고 봄에 피는 꽃 또한 관상 가치가 있다.

>> 설탕단풍(Sugar maple) *Acer saccharum*



북아메리카 동부와 중부 그리고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이 나무의 수액으로 시럽을 만든다.

>> 시볼디아눔단풍 *Acer sieboldianum*



일본 자생의 단풍나무이고 일본단풍(Acer japonicum)과 닮았으나, 꽃은 빨강색이 아니라 노랑색이다. 잎은 세밀하게 갈라져 있다.

>> 노박덩굴 '다이아나' *Celastrus orbiculatus 'Diana'*



우리나라, 미국 남동부에 자생하는 덩굴성 나무이고, 꽃은 가지 끝에서 피고 열매의 씨앗은 주황색이며, 덩굴은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 인테르메디아풍년화 '다이엔' *Hamamelis x intermedia 'Diane'*



일본자생의 H. japonica와 중국자생의 H. mollis를 벨기에의 한 수목원에서 교배된 식물이다. 빨강색의 꽃과 적갈색의 단풍이 아름답다.

>> 화살나무(Wind Spindle Tree) *Euonymus alatus*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키작은 나무이고, 가을의 단풍이 빨강색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녹색 잎은 나뭇잎로 먹을 수 있다. 열매의 씨앗은 주황색으로 아름답다.

과수정원

Fruit Garden

과수를 심을 수 있는 적기이다. 그렇지만 지반에 따라서 땅이 얼어 있거나 수분이 많다면 피해야 된다.
다음 해의 과수정원의 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고, 귀상 후에 심을 수 있는 과수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달이다. 우선은 자기가 좋아
하는 과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 심을 수 있는 마지막 달이기도 하다.

사진 1 복사나무를 부채꼴 모양으로 유인한 사례이다.



사진 2 복사나무를 양팔벌려 모양으로 유인한 사례이다.



과수의 과일 맺는 눈이 너무 많으면 속아내
기를 한다. 과수에서 전정을 하는 가장 큰 이
유는 과일이 매년 균일하게 달리게 하기 위함
이다.

즉 해절이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해절이를 하
게 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시기에 전정을 하는 나무들은 사과, 배, 모
과 등이다. 유인이 필요한 사과, 배나무 등은
이 시기에 하면 된다. 유인하기는 목적에 따라
서 생산을 위한 것도 있지만 관상적인 관점으
로도 할 수 있다.

다음은 관상적인 관점으로 유인하기 한 사례
이다.

Garden Maintenance 정원관리

나무는 보통 기둥과 관상을 위해 식재하고, 더불어 상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식재를 하게 된다. 이때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점으로 그 장소에 적당한 나무를 심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고려해 되어야 할 사항은 나무의 기
능, 관상, 상징적인 부분이 된다. 이 번에는 수목의 전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나무의 전정은 나무식재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무의 올바른 기능, 관상, 상징적인 효과가
잘 드러난다.

꽃을 보기위해 나무는 꽃을 많이 보기위해 전정을 하고, 과수는 열매가 잘 맺게 하기위해서 전정을 해야 한다

전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나무의 수형을 균형있게 함으로써 나무 고유의 수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한다.
- 햇빛과 바람이 나무에 잘 통하게 하여 병충해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다.
- 옷자락 가지를 사름으로써 나무의 자람을 좋게 한다.
- 화목류에 맞는 전정을 함으로써 꽃이 많이 피게 도와준다.
- 나무의 기능적인 부분 즉, 방풍, 방화, 경계 등의 역할
을 잘 살려준다.
- 가을철의 전정은 여름철 전정과 겨울전정의 사이에 있다.
가을철 전정은 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수형에 영향을 주
는 가지를 잘라준다.

전정해야 될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줄기 끝의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하나로 잘라
준다.
- 정면으로 돌출한 가지는 시선을 불편하게 함으로 잘라
준다.
- 마주보는 가지는 하나만 남기고 자른다.
- 둘러나는 가지는 2-3개만 남기고 자른다.
- 맹아지 도장지는 자른다.

일반적인 관리(Regular Maintenance)

- 시든 꽃 따주기 (다알리아, 사루비아 - 서리 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 다알리아 구근개기(추위에 약한 종들은 구근을 캐서
건조한 토양에 저장했다가 봄에 심는다.)
- 피라칸사 전정(겨울에 열매색을 잘 보기위해 열매가
달린 가지 윗부분을 자른다.)

번식(Propagation)

- 속지삽목(올해 자란 딱딱한 가지삽목) 예)장미, 낙엽관
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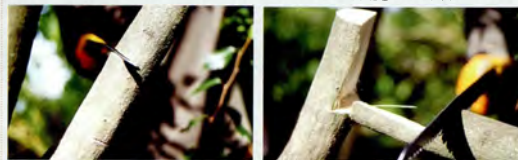
나무전정(Pruning)

이 나무가 위치한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옮겨심기를 해
야되는 일이 생겨 전정을 하게 되었다. 보통은 옮겨심기후에 전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나 이 경우에는 큰 나무의 옮겨심기후에 전정을 하
게 되면 나무위에서 전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옮겨심기 전에 전
정을 하는 것이 수형을 잡고 전정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전정
을 한 경우이다. 또한 옮겨심기를 하게 되면 뿌리가 잘리게 됨으로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을 잡기위해 전정을 해야 한다.



나무전정1 - 복사나무

나무전정2 - 복사나무



나무전정3 - 복사나무

나무전정4 - 복사나무



나무전정5 - 복사나무

나무전정6 - 복사나무

1. 공기유동이 잘되게 하기위하여 두 가지 중에 오른쪽 가지를 자른다.
2. 큰가지를 자른 경우에는 먼저 아래에서 1/3이상 자른다.
3. 아래를 자른 부위에서 바깥으로 가지 직경의 1-15배정도 되는 부위 위에서 자른다.
4. 이렇게 자르는 가지가 찢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5. 그 다음 마지막 자르기들을 하면 된다. 자르는 각도를 잘 보고 나무의 조직이 상하지 않게 자른다. 먼
결되는 부위가 조밀하게 되어 있어 가지의 방어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주된 가지와 측면으로
자란 가지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6. 마지막 자르기를 한 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깨끗이 정리야 한다.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세상에 먹을 마늘과 양파를 심는다. 너무 일찍 심으면 겨울에 잎이 추위에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너무 늦게 심으면 땅이 물러와 뿌리가 잘 내리지 않아 추위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주변의 토양은 알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따라 심으면 별 문제없을 것이다.
겨울에는 녹색 채소가 귀한데, 이때 식물을 뿌려두면 겨울철 내내 녹색채소를 먹을 수 있고 맛 또한 매우 좋다.
덧붙여 있는 모든 채소를 수확한다. 예) 당근, 비트, 배추, 무, 콜라비 등.

퇴비 만들기 과정

- A 탄소가 많은 재료 : 낙엽, 볏짚, 마른 줄기 등
- B 질소가 많은 재료 : 쌀겨, 계분, 비지, 청초, 음식찌꺼기, 채소 다듬질 한 것 등

1 퇴비장틀이 완성된 모습



퇴비장틀의 틀을 만든다(세로 1.5m, 가로 2m, 높이 50cm 정도). 퇴비용 재료를 넣고, 발효시키기 위한 나무틀을 만든다. 안쪽 바닥을 평평하게 다진다. 크기는 만드는 분량에 따라 다르다. 아래 바닥은 흩은 채로 둔다.

2 퇴비장틀안에 A의 재료넣기



나무틀 안에 A의 재료를 높이 20~30cm 정도까지 넣는다.

3 쌀겨넣기



쌀겨를 전체에 골고루 뿌린다.

4 쌀겨넣고 밟기



쌀겨를 뿌린 후 위에 올라가 밟는다. 특히 가장자리를 더 잘 밟는다.

8 풀넣기



이번에 넣은 것은 청초, 청초는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퇴비의 온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청초는 잡초라도 좋다.

6 반복하기

2~4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낙엽→쌀겨→발기)

7 비지넣기



비지를 전체에 잘 퍼준다.

5 계분넣기



계분을 전체에 퍼는 정도로 넣고, 잘 만든다.

9 액비뿌리기



전체가 50cm 정도의 높이가 되었으면, 물을 아래 부분까지 흘러나올 정도로 축축하게 준다. 물대신 액비를 넣어 주어도 좋다.

10 쌓아올리기

여기까지의 작업을 몇 번이고 반복해,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지 쌓아 올린다.

11 포장되어 마무리하기



비닐시트(천막도 좋다)를 덮고, 시트가 날아가지 않도록 날뻐지 등으로 눌러 놓는다.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한다.

12 포장되어 마무리하기

첫날은 30~40°C, 둘째 날은 70°C 전후가 되고, 셋째 날에서 일주일 간 고온이 계속된다. 발효 온도는 70°C 전후가 적은, 너무 낮으면 부숙이 늦어지고, 너무 높으면 양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15 쌓아올리기

그 후 10일에서 2주간 간격으로 2회 뒤집어 준다. 되도록 밟지 않도록 한다. 3회까지 뒤집으면 거의 분해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40~50°C의 온도가 되고, 그 후 일주일이나 30°C 이하로 떨어진다.

16 완숙퇴비

2주간 정도 지나면 거의 완숙퇴비로 변하고, 지렁이 등 작은 생물이 생긴다.

퇴비의 효과

발효열로 병원균이나 해충, 잡초의 씨앗이 사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밭에 뿌려도 병해충이나 잡초 발생의 걱정이 없다.



가드닝 팁 특집기사

건강한 식물, 튼튼한 뿌리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쉽게 퇴비를 만드는 법.

Homemade (자제) 퇴비를 만들기

장점

퇴비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한 식물을 키우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물론 첫 번째 이점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며, 이는 퇴비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정원, 토지, 그리고 부엌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점은 직접 퇴비의 품질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장점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퇴비화

퇴비화는 자연적인 부패 과정이다. 퇴비화 하기 좋은 재료는 잎, 잔디, 잘게 토막 낸 가지, 죽은 식물, 그리고 커피 가루와 과일/야채 찌꺼기 같은 음식물 쓰레기들이다. (육류 제품, 지방, 또는 애완동물 쓰레기를 같이 퇴비화 하면 안 된다.) 상기 모든 재료들을 쌓아 놓으면, 저절로 퇴비로 변할 것이지만,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퇴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자.

탄소와 질소의 비율

초적 비율

퇴비화에는 3가지 재료(유기농 재료, 공기, 그리고 수분)가 필요하며, 유기농 물질은 2가지로 크게 구분 된다. "녹색 재료" 그리고 "갈색 재료"로 표현되며,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는 탄소 함유가 높은 재료를 "갈색 재료"라 부르며, 낙엽, 지푸라기, 그리고 옥수수 대 등이 있다. 녹색과 갈색을 띠며 질소 함유가 높은 재료를 "녹색 재료"라 부르며, 잔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거름 같은 동물 부산물 등이 있다. 퇴비화 진행을 가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약 30대 1로 한 유기농 재료가 미생물을 소화 할 때 이다. 여기서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는 필요는 없지만, 질소 함유량이 많은 "녹색 재료"와 탄소 함유량이 많은 "갈색 재료"를 1대 2~3으로 섞어서 자연적으로 퇴비화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질소 함유량이 높은 잔디 한 묶음과 탄소 함유량이 많은 낙엽 2~3 묶음을 쌓아서 빠르게 부패시키면 되는 것이다.

비율 조정

상기의 비율의 재료를 60~66°C 온도를 높여주면, 1~2주 후에는 완성된 퇴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잡초 종자와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 이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퇴비를 얻을 수는 있다. 갈색재료가 많으면, 재료

가 부스러지고 퇴비화가 느리게 진행되며, 잡초 종자와 병원균이 살아 남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느린 방법으로 퇴비화를 진행시, 병에 걸린 식물이나 잡초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 하면, 녹색 재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럴 땐 간단히 갈색 재료를 더 섞어 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퇴비장 만들기

퇴비장 위치

넓은 장소가 있으면, 그냥 퇴비장을 개방된 공간에 만들면 된다. 장소가 조금 협소 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료를 담을 수 있다. 퇴비통을 만들 재료를 구매 할 수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통은 가격이 비싸다. 비닐 봉지, 쓰레기 봉지, 또는 지렁이 통을 사용할 수 있다. 구멍이를 파거나 퇴비장을 열 단위로 만들어도 된다. 방법은 공간, 금액, 주변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 퇴비화 이론은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문제 없이 적용 된다.

철망퇴비통

개인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철망퇴비통을 추천 한다. 3m 폭의 1m 높이 철조망을 준비 하며, 구멍은 5cm x 10cm 정도가 적당하다. 끝 부분을 동글게 하여 서로 밀착 시키고 철조망 윗면이 개방되게 평평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 위에 위치 한다. 위치는 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과 퇴비를 사용 할 장소에 가까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닥 흙을 고르게 해 준다. 이렇게 하면 퇴비화 작업을 바로 시작 할 수 있다.

퇴비화 작업

퇴비통 아래쪽 바닥에 갈색 재료를 깔고, 그 위에 녹색 재료를 칸 후, 흙을 위에 살짝 뿌려 준다. 짓지 않고 축축할 정도로 물을 고루 뿌려 주어서, 물기를 짜낸 스펀지처럼 축축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재료가 다 들어가고 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통을 매꾼다. 한번에 하거나 며칠에 걸쳐서 혹은 몇 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 덩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4~5일에 한번 물을 뿌려 줘야 하며, 재료를 너무 촉촉히 쌓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느슨히 재료가 쌓여야, 환풍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추가 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 되면 또 넣어주면 되며, 내용물은 2주 간격으로 뒤집어 미생물이 중간 층에 올 수 있게 한다. 신선한 산소 공급이 되면, 퇴비화 진행이 자연스럽게 진행 될 수 있으며, 내용물이 건조해 졌으면 물을 추가로 뿌려 주면 된다.



상기 방법으로 하면 질 좋은 퇴비를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얻을 수 있으며, 비옥한 토양과 튼튼한 뿌리를 가진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화 재료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화 재료

이런 건 사용할 수 있어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화용 재료를 정확히 구분해야 하며, 채소와 과일 쓰레기, 티백, 그리고 가지치기한 식물이나 잔디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재료들은 쉽게 부식이 되며, 질소와 수분을 공급한다. 다른 종류로는 종이 계란 판, 구겨진 종이, 그리고 낙엽 등이며, 천천히 부패되고 섬유질과 탄소를 제공하며, 에어포켓을 형성 한다. 뽕은 계란 껍질을 더하면 좋은 미네랄을 추가 할 수 있다.



채소 껍질, 버린 과일, 티백, 가지치기한 식물, 잔디재, 골판지, 뽕은 계란 껍질

절대사용 불가 목록:

어떤 재료들은 절대로 퇴비화용으로 사용 하면 안 된다. 조리했던 채소, 고기, 유제품, 병든 식물, 개의 배설물, 말린 음식물, 고양이 배변받이나 기저귀 등을 사용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재료를 넣게 되면, 불필요한 세균이나 냄새를 유발 할 수 있다. 다년생 잡초(민들레, 엉겅퀴류)나 꽃씨가 있는 잡초도 피해야 된다. 플라스틱, 유리, 그리고 금속류는 퇴비화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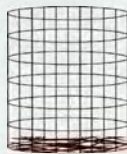
조리한 채소, 고기, 유제품, 병든 식물,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 기저귀.

플라스틱/유리/금속



철망 퇴비통 만들고 사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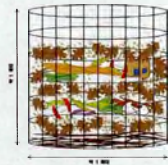
1. 철조망 끝에 철사가 돌출 되지 않게, 자르고 간 후 2겹으로 테이핑을 한다.
2. 철조망을 동글게 미터 폭의 원통 모양으로 말고 양쪽 끝이 마주 보게 고정 한다.
3. 퇴비화 통을 그늘지고, 편리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명명하게 위치 한다.



4. 잔가지와 굵은 가지를 맨 밑 바닥에 깔면, 퇴비화 통의 통풍이 잘 되게 할 수 있다.



5. 갈색 재료를 가지 더미 위에 15센치 정도의 두께로 쌓는다.



6. 녹색 재료를 위에 5센치 정도의 두께로 쌓는다. 재료가 철조망에 닿지 않게 쌓는다.

7. 갈색 재료를 다시 위에 15센치 정도로 쌓고, 모든 녹색 재료 층이 갈색층으로 아래에 묻힐 수 있게 한다.

8. 퇴비화 통이 꽉 찰 때까지 계속해서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를 쌓는다. 재료를 쌓을 때 바람을 불어서 공기 층이 생기게 한다. 재료가 말라있으면, 물을 주어서 촉촉하게 한다. 재료는 항상 촉촉해야 하며 너무 질척거리면 안 된다.
9. 퇴비화 시간을 줄이려면, 내용물의 위 아래를 뒤집어 주면 된다. 일년에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뒤집어 줘야 하며, 자주 뒤집어 줄수록 퇴비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10. 내용물이 비옥한 갈색 흙처럼 되면, 퇴비가 완성 된 것이다. 간단히 철망을 분리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곳에 다시 설치 하여 퇴비화 작업을 또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방법

문 제 내 용	문 제 원 인	해 결 방 법
내용물이 식초나 썩은 계란의 악취가 남	산소부족, 수분과다	내용물을 뒤집으며 낙엽, 갈대 등 마른 재료를 넣어서 물기를 제거한다. 두껍을 덮어 비로부터 보호한다.
	산소부족, 공실 부족	내용물을 뒤집으며 띄워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한다.
내용물에 임모니아 악취가 남	녹색 재료 과다	갈색재료를 더해준다.
쥐, 개, 너구리, 파리, 해충이 모임	불필요한 음식을 피하기 포함	고기, 기름, 뼈 또는 기타 애원용 먹이를 더하지 않는다.
달팽이, 곤충이 모임	제대로 퇴비화가 진행 중	그대로 진행 한다.
영키거나 썩지 않는 이파리 또는 잔디재 층	환기 불량, 공실 부족	층별로 따로 분리/분해 하고, 다시 쌓는다. 무겁고 분해되지 않는 이파리, 잔디재, 건조 또는 층이는 추가를 하지 않는다.
크고 썩지 않는 재료	재료가 너무 큼	이런 재료는 모두 없애고, 잘게 잘라서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새로운 층에 쌓는다.
중심이 마르고 거칠고 나무류 재료가 섞여 있음	수분 부족, 나무류 재료의 초과	뒤집고, 수분 추가, 가계 자른 녹색 재료를 추가
중심부 재료만 젖어있고 딱딱함	재료가 적고 건조 함	재료를 더 모아서 넣고 수분을 추가
재료가 젖어있고, 달콤한 냄새가 나지만 열이 발생 안함	질소 재료 부족, 퇴비화가 안된 판지 확인	새로운 잔디재나 질소 재료를 혼합

퇴비화 작업에 필요한 6가지 지식

생물학

퇴비화 통은 거대한 미생물 공장과 같다. 박테리아가 유기농 재료를 썩이는 것을 시작으로, 식물의 조직을 분해하며, 가장 많이 그리고 효과적인 퇴비화를 진행 시키는 매개체 이다. 곧바로 곰팡이나 단세포 유기체가 생겨날 것 이며, 사이클, 지네, 노래기, 딱정벌레와 지렁이 또한 퇴비화 진행에 도움을 준다.

재료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재료로 쓰일 수 있으며, 이런 식물 재료는 탄소와 질소를 포함 하여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 된다.

재료의 표면

미생물이 서식 하는 표면이 넓을 수록, 재료들이 더 빠르게 퇴비화 될 수 있다. 분쇄한 잎이나 잘게 자른 정원 쓰레기는 퇴비화 진행을 빠르게 할 것 이다.

부피와 온도

퇴비화 진행 시 70도까지 올라가면, 퇴비화 재료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퇴비화 됨을 보여준다. 퇴비화 재료가 많을 수록 단열이 잘되어서 열을 모아 둘 수 있다.

수분과 공기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 미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스펀지의 물을 짜낸 정도의 물기를 가진 재료가 필요하다.

시간

퇴비 재료가 적당한 크기, 수분, 표면적과 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퇴비는 단 몇 주면 완성이 된다. 이 들 중 하나라도 적당하지 않으면, 결과물 생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기본적인 퇴비재료 층

- 1층 10~15센치의 잘게 자른 덩불 또는 다른 굵은 가지를 땅 위에 놓아서 바닥의 통풍이 잘 되게 한다.
- 2층 7~10센치의 잔디재나 건조, 이 재료들을 퇴비화 통에 쌓을 때 꼭 적셔 준다.
- 3층 7.5~10센치의 잎, 지푸라기, 또는 줄기. 이 재료들을 퇴비화 통에 쌓을 때 꼭 적셔 준다.
- 4층 (선택사항) 2.5센치 흙, 미생물이 퇴비화 통 중간에서부터 자랄 수 있게 한다.
- 5층 (선택사항) 5~7.5센치의 동물 분비물, 10~10 비료, 또는 혈분 한 컵. 질소의 퇴비화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분비물이 많았으면 물을 추가해 준다.

다른 재질의 퇴비화 통

1. 플라스틱



2. 나무



우리꽃의 시루정원을 말하다

시루정원소개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언어의 사용에는 풍습과 문화까지도 예외 일수는 없다. 이제 유기농 시루정원을 시골 농부의 정원이나, 도시의 자투리땅이나 도시농업의 텃밭에도 이제는 인정을 하며 새로운 도시농업이란 타이틀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게 거듭나야 한다.

1960년대는 새마을 운동을 이어가며 농촌 살리기에 퇴비장을 높이 쌓기 운동 장려정책으로 마을, 학교마다 상추기 경쟁이 펼쳐지고, 1960년대 지방의 학생들은 건초더미를 새끼로 묶음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단을 쌓아주고, 초, 중, 고 대학생, 직장인들 까지 동원되어 건초더미에 물을 붓고, 밭기, 흙 부어주기 등을 하여 자연 퇴비를 만드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었었다. 산을 빠르고, 푸르게 가꾸기 위해서 성장이 빠른 아카시아, 버드나무의 식수를 장려하였으며, 토양도 비옥해지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제 2000년의 선진국은 세계 각 지역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관광사업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며, 정원사는 중급 이상의 위치에 서는 사회구조로 들어가고, 농업을 짓는 사람은 중상층에 속하고, 정원사들은 제 3개국의 식량공급을 고려하며 아프리카의 난민촌을 방문하여, 어떤 도움이 그들에게 가깝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현지에서 검토 후, 한번의 후원이 아닌 계속적인 식량공급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시야에 각 장소마다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만들어낸 아주 획기적인 시루정원을 소개하려 한다.

길거리나 이웃의 환경정리에서 이용되는 재료로 훌륭한 텃밭이나 정원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우며, 길거

리에 그린박스, 브라운 박스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며 우리 지역구도, 나의 지역구도 예산의 낭비로 국민의 세금 부담에 또 하나의 손가락을 얻는다. 또 다른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다. 환경을 아름답게 라는 녹색조경과, 녹색발전 협의회, 녹지와 등의 사회지역 단체장에서는 이제 유기농의 자연 친환경 텃밭을 어떻게 이용하고 응용하여 작은 나라 국토에서 아름다움과 먹거리를 실천하는가를 아주 꼼꼼히 고려해야 한다. 아니 실천해야만 하는 시간이 발등에 부딪치는 시기이다. 6차 산업은 창조와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궁극적인 의미도 내포한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 환경 그리고 각 가정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친환경 의미를 이루기를 바라며 시루정원이 황성과 되기를 우리꽃 영농조합 기획팀이 연구개발한 아이디어도 함께 소개한다.

시루정원이란 가든인 10월호, 유기농 키홀 정원의 연재,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투리 땅이나 도시농업의 텃밭 정원을 우너하는 독자를 위해 아래 그림을 소개하며, 시루정원 만이 갖는 독특하고 1석 3조의 정원의 효과를 모든 독자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루정원 열면도

시루정원의 특징

1. 텃밭으로 필요한 채소를 얻을 수 있다.
2. 텃밭 정원에 정원도 가꾸는 유기농 정원
3. 중심부의 유기농 비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절약형 유기농 텃밭 정원의 완성
4. 텃밭이나 정원의 유기물 쓰레기를 모아 자연 퇴비 공급원으로 이용
5. 아름다운 경관과 식용채소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이용 장소 : 자투리땅 이용, 아파트 옥상정원, 도시의 도시농업 텃밭 정원의 유기물 쓰레기 해결 도시공원의 유기물의 폐기물이나 잔디나 수목 관리후 유기물 폐기물 쓰레기 이용가능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시루 정원을 이용하면 경관도 아름답게하며, 상층부에서는 필요한 가정의 채소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며 시루 처럼 내부안에 유기물의 퇴적물이 부패하며 빗물이 내리면 자연히 영양공급을 하여 특별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성장하고 주변의 지저분한 공간이 먹거리와 경관을 주는 놀라운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삼각 자투리땅 설치



도시 공원의 쓰레기장 주변을 텃밭을 응용한 시루 정원의 또 다른 변신



넓은 공동의 텃밭도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여 유기농 시루 정원을 만들면 경관도 넓은 정원의 경관도 만들고 일반적인 텃밭 농원도 얻는 일석 삼조의 시루 정원의 예를 볼 수 있다.

정원을 가꾸는 어느 장소든 많은 유기물이 나오게 된다

우리꽃 영농조합의 쓰레기장 한부분을 정리하여 시루 정원을 시공하였다.

아래의 그림 처럼 내년 봄부터는 상단 부분에 채소를 가꾸어 점심 시간에는 직원들의 채소도 공급을 하게되며, 높이가 있어 구부리지 않고 편한 위치에서 채소를 가꾸는 raised bed 의 역할을 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일이 쉬워진다.

이번 시루 정원의 프로젝트를 만들며 쓰레기장 지역이 정원과 텃밭으로 계속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정원속의 텃밭을 만들어갈 것이다.

필요한 재료 : 흰 검점 프라스틱 관(이미 구멍이 나있어 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빗물이 흐르면 영양분을 주변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흙, 돌, 가을철 추수한 벚칩과 가장 자리의 벽이 되어줄 예코펜스 34개



쓰레기장의 작업 준비 공간



터를 정리한 후, 밑바닥에 돌을 깔고 흙으로 바닥을 평평히 정리. 중앙에는 준비한 중심통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가장 자리는 붓을 박아 후에 기울거나 빗물에 흩이 파이지 않도록 예코펜스로 흙을 채우며 가장 자리를 깔끔하게 만들어준다



중심통의 내부는 정원에서 정리한 마른 풀과 집초 정리한 것으로 유기물 쓰레기를 모아둔다.



예코펜스의 조립은 아주 간단하고 천과 철사로 쉽게 조립하여 화단을 만들어 지면과 연결하면 식물이 뿌리내리며 지면과 더 강해진다.



약 2평 크기의 완성된 시루정원에 서서 유기농 시루정원의 새로운 디자인을 도출하려는 우리꽃 영농조합 정원사들.



위의 그래픽처럼 이제 봄이 오면 채소텃밭과 정원을 한눈에 보는 시루 정원의 모습을 올릴 것이다. 정원사는 늘 연구하고 창의력을 동원하여 정원도 가꾸며 텃밭도 즐기는 그리고 유기농 분비물과 쓰레기 해소를 위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루정원의 효과가 이제 가을날 유기농 비료를 준비하는 정원사에게 하나의 숙제로 떠오르며 모두가 정원에서 기쁨과 수확을 누리는 시간이 오길 기대해보며 시루정원의 창작물이 모두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Keyhole 의 예

키홀 정원은 텃밭의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음을 그림으로도 알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Key Hole 키홀정원의 사진으로 시루정원과의 차이를 비교하자





홍대 무대룩 옥상텃밭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

서울 마포구 상수동 당인리발전소가 있던 지역은 홍대 인근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부각되는 곳이다. 그 중심에 공연과 전시 등을 함께 하는 문화카페 무대룩이 있다. 이 핫한 공간의 옥상에는 지속가능한 도시텃밭을 지향하는 녹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무대룩 옥상텃밭으로 알려진 이 공간의 녹색공간을 찾아가 봤다.

글 / 사진 김지배

회원들 자율 참여로 이루어지는 도시텃밭

시민들이 한가한 오후를 만끽하고 있는 청명한 가을 일요일 오후, 상수동에 자리한 카페 무대룩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물을 공명하는 바하의 D마이너 파르티타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 3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모던한 카페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이른바 무대룩 옥상텃밭, 허브류에서부터 각종 채소류, 그리고 목화, 까치콩 등 희귀작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도심 속 텃밭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다양한 성향의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커뮤니티다. 지난해 5월, 무대룩 옥상텃밭을 개장한 이래 1년 반 가량 이 곳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자 멘토와 새롭게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이 텃밭관리에 한창이다.

새롭게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은 잘 자라고 있는 물라비에 물을 주고 오늘은 쪽파를 새롭게 심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는데로 텃밭을 찾아 경험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정자 멘토는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관리가 공동텃밭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개방을 하고 텃밭을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잘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고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회원제를 도입해 성실히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란 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공동텃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대룩 옥상텃밭에는 현재 박정자 멘토가 운영하고 있는 홍대 다리텃밭 참여자를 포함해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커뮤니티를 이루며 정보를 나누고 공동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물 당번을 정해서 물을 주고, 카톡 등을 이용해 농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부학교를 개설했다. 농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도시텃밭에 관한 정보도 나눈다. 별 키우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외부 강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다 함께 고민해야 할 지속가능한 농업

박정자 멘토는 여성환경연대에서 기획한 초등학교 텃밭과 문래 도시텃밭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도시텃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다리 텃밭 이후 홍대 도시텃밭 2호적인 무대룩 텃밭 운영을 시작한 지난해는 거의 매일 텃밭에 있다시피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도시농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재는 대학에서 친환경 원예를 전공하고 있다.

“공부와 텃밭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텃밭관리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밖에 할애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일반 농사 외에 화훼, 과수, 수경재배 등 실습위주의 교육이 많아서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더 바빠진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몰랐던 전문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개념인데 앞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비단 전문가들만 고민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다 보면 완전한 자연 생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쉽게 말할 수 없다. 텃밭과 식물에 대한 각자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그리고 정보교류와 의견개진을 통해 서서히 그 적정성과 효율적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홍대 무대륙 옥상텃밭은 그런 작은 시도들의 첫 발을 내딛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홍대 무대륙 옥상텃밭 박정자 멘토가 말하는 공동텃밭 관리

공동텃밭은 생각이 다르고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의 모여 식물을 기르는 공간이다. 식물과 원예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정답을 제시할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자율적 참여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분들은 방임형 텃밭을 지향한다. 이른바 태평농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도의 관리 없이 텃밭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마당 텃밭이라면 상권이다. 하지만 공동텃밭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텃밭이란 식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미학적 측면도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없을 때와 서 혼자 식물들을 돌보며 조용히 힐링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일부분에 참여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Gardenin TIP 가드닝 팁

옥상텃밭 월동준비를 위한 Tip



우리나라의 겨울은 혹독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실상 옥상 텃밭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겨울철에 꼭 식물을 기르고 싶다면 온실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설치하는 물론 관리가 만만치 않다. 개인 가정의 옥상텃밭이라면 일부 식물을 실내 베란다로 옮겨놓는 방법이 있다. 이때 추워지기 전에 미리 옮겨놓는 게 좋다. 추위가 닥칠 때 내려놓으면 이미 식물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화분을 통째로 옮기는 게 좋다. 무대륙 옥상텃밭도 김장이 끝나는 11월 중순이면 사실상 겨울 휴지기에 들어간다. 흙을 놀리기 아쉬우면 보리, 시금치 등 겨울을 나는 작물 씨앗을 심어두면 좋다. 이른 새벽 파릇한 생명이 움트는 기쁨을 맛 볼 수도 있다.

[Greenhouse 온실]

일정한 지면을 투명한 피복재로 덮고, 이 둘러싸인 공간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옥외에서 재배할 수 없는 시기에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며, 시설목적 및 그 횡단면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되는데 육묘온실, 재배온실, 유리온실, 양지분식온실, 반원형온실, 단동온실 및 연동온실 등 그 명칭이 상당히 많음.

채소, 꽃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온도를 올려 수확기를 바꾸기도 하고, 온도가 낮아서 보통은 생산할 수 없는 작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 엄밀히 말하면 기온을 낮춰서 재배하는 유리로 만든 방을 온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단순히 채광이나 보온을 위해 유리를 이용한 시설을 유리실이라고 한다. 유리실이나 온실 등의 재배지도 경지에 포함시킨다.



수선

가을 구근 식재

크로커스



알리움



콜치쿰

구근류는 왜 가을에 심을까?

많은 종류의 구근류를 가을에 심으라고 권한다. 왜 그럴까? 이는 식물의 생육 주기를 충실히 따라주는 것이라 그렇다. 추식구근은 대부분 온대지방 원산의 식물인데 온대지방에는 겨울이 존재한다. 당연히 겨울에 썩어 트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대지방의 구근식물은 일정 기간의 저온을 받고 나서야 썩어 트게 진화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온대지방 원산의 구근은 대부분 가을에 심는 것이다. 개중에는 아네모네, 프리지어처럼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도 있기도 하다.

구근 고르는 법

구근은 크고 매끈하며 병이 없는 것을 고르면 된다. 이 표현이 너무 어렵다면 청과시장에 가서 마늘과 양파를 고르는 느낌으로 고르도록 하자. 맛있게 생긴 구근이 건강한 구근이다. 개중에는 프리지어, 아네모네, 라넌큘러스처럼 구근 크기가 작아



수선구근



무스카리구근



알리움구근



크로커스구근



콜치쿰구근



프리지어구근



수선심기



콜치쿰심기



크로커스심기



튤립심기



프리지어심기



튤립구근



도 꽃 피는데 문제가 없는 구근들도 있다. 이들을 고를 때는 곰팡이나 병 유무에 더 신경 쓰며 고르도록 한다.

추식 구근의 종류

튤립, 수선화, 크로커스, 콜치쿰, 치오노독사, 알리움, 백합, 프리지어, 아네모네, 무스카리, 히아신스, 라넌큘러스 등이 있다.

참고로 백합은 봄에 판매되는데, 백합이 추식구근에 분류되는데 봄에 판매되는 이유는, 봄에 판매되는 백합은 저온처리를 거쳐서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백합을 1년간 살리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가을에 심어야 한다.

추식구근의 식재법

대부분의 구근류는 구근 높이의 2배 정도로 땅을 파서 심으면 된다. (구근 높이가 3cm라면 6cm깊이로 땅을 파고 심는다) 경기, 강원도 북부 같은 추운 지방에 구근을 심는다면 구근 높이의 3~4배 정도 깊이로 심어도 된다. 구근을 너무 얇게 심으면 구근이 터위나 추위, 건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좋지 않다. 백합은 예외적으로 깊게 심어야 하는 구근인데 기가 커서 깊게 심는 것이 쓰러짐 방지에 좋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가 깊게 심어야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백합은 구근높이의 3~5배 사이의 깊이로 심어주면 된다.

추식구근의 소독법

수입된 구근은 치명적인 병균이 없어야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구근을 구입한 첫 해에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하거나, 구근에 썩은 부분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소독을 하도록 하자.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집에서 2년 이상 키운 구근을 심을 때이다. 구근을 소독하는 법은 베노밀 200배 희석액에 30분정도 구근을 담가두면 된다. 락스로도 소독이 가능한데 락스 300~500배 희석액에 구근을 역시 30분정도 담가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구근을 소독할 때는 구근 껍질을 벗기고 소독해야 된다는 점과, 소독을 할 때는 구근을 심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껍질이 벗겨진 구근은 건조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식구근 식재 후 관리법

추식구근은 대부분 추위에 잘 버티는 종류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꽃이 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만약 구근을 화분에 심었다면 겨울 동안 0~5도 사이로 유지되는 실내로 화분을 옮기는 것이 좋다. 화분은 냉기가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개중에는 아네모네나 라넌큘러스, 프리지어같이 겨울에 썩어트는 종류들은 겨울 동안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며 키워야 한다. 이들은 야생에서도 겨울에 자라서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네모네나 프리지어는 밤 기온 10~15도 사이의 온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키워면 웃자라고 꽃눈이 더디게 생기기 때문이다.

봄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은 독자는 가을을 알차게 보내 봄에 더욱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도록 하자.

아름다운 추식구근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정원 연출



유럽이나 네덜란드의 시골에 봄이 막 찾아오면 들과 수풀은 꽃 무리들이 피어나 마치 꽃가뱃처럼 보입니다. 크로커스(Crocus), 하아신스(Hyacinthus), 아네모네(Anemone), 아이리스(Iris), 알리움(Allium), 프리틸라리아(Fritillaria), 무스카리(Muscari), 실라(Scilla) 그리고 수선화(Narcissus)들이 온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식재한 추식 구근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연화'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필요 없는 풍성한 조경 연출은 오늘날 바쁜 정원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까요?



구근을 활용한 가드닝은 가장 간단하며 아름다운 결과물을 창출한다

수백년전에 네덜란드는 튜립을 터키에서 들여와서 생산하고 수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이 작은 나라는 구근과 꽃을 전세계에 수출하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구근은 가장 기르기 쉽고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이며, 정원에서 누구나 쉽게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입니다. 구근은 자생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재 때에 심기만 하면 스스로 잘 자랍니다. 구근을 거꾸로 심거나 옆으로 심어도 자신이 자라야 되는 방향으로 자라며,



구근은 자연스러운 경관 창조에 이상적인 식물입니다. 어디든지 심기도 쉬울뿐더러 꽃 자체도 워낙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구근을 어떻게 심어서 어떤 정원으로 만들지에 대해 독자가 쉽게 이해하여 정원 가꾸기를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근의 가치

구근의 가치는 품질, 서비스, 그리고 가격에서 결정됩니다. 꽃의 크기 크고, 건강한 줄기를 가지며, 많은 꽃이 개화되는 구근이 좋은 품질을 가집니다. 좋은 품질의 구근을 사진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구근 식재의 방법으로는 심는 깊이 가 구근의 종류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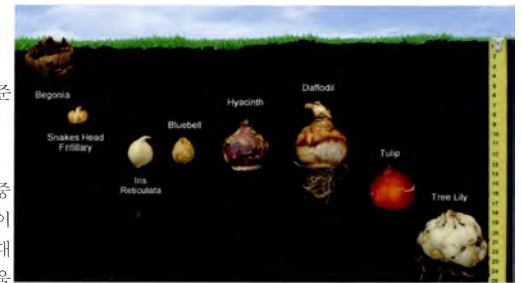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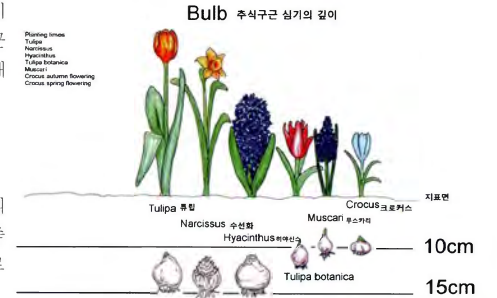
소개되는 식재법에서 주의 사항은 심는 깊이에 따라 높낮이를 준비하면 된다.

정원 설계

계절에 따라 어떻게 정원을 가꿀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근의 중요 특징인 꽃의 색깔과 모양, 개화 시기, 햇빛의 양, 줄기의 높이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독자가 상상하는 정원을 그대로 설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습성을 잊지 않고 자라납니다. 예를 들면, 튜립(Tulipa)이나 수선화(Daffodils)는 잊지 않고 봄에 첫 꽃을 피우며, 달리아(Dahlias)는 여름에 큰 꽃을 피우고, 릴리(Lilium)는 그늘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색깔, 크기, 질감의 다양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 계절 다양한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근과 정원디자인의 효과를 해마다 즐긴다.

구근을 구입하는 최초 구입비용은 기타 식물에 비해 더 들지만, 1회 식재로 매년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포기가 계속 늘어나 몇 해 후에는 별천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원, 공원, 꽃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잘 어울리고 쉽게 키우며 감상할 수 있는 수많은 구근화훼가 꽃을 심고 관리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근의 특성

이른 봄에 눈이 막 녹기 시작할 때, 낙엽을 뜯고 꽃이 피는 이러한 특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그 전 해 9월부터 11월까지 땅이 얼기 전 식재해야 하는데 이는 꽃이 피기 전 추위를 견뎌야 화아 분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겨울 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 식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추식구근으로 풍성한 정원준비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구근작용은 이른 봄 화분에 심겨진 튤립이나 수선등을 꽃이 핀 상태로 구입하여 화단이나 큰 화분에 모아 심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추식구근의 특징을 제대로 아는 조경인이라면 약간의 적당하지 않은 적용법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가을에 현장에 직접 심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관상가치도 한 달 이상 지속되며, 무엇보다 힘을 길러 다음해에 더욱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 조경에서 보기를 원하면 화분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한다. 이른 봄과 음지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려한 조경소재가 한정적인데 구근을 이용하면 활엽수 아래나 꽃이 피지 않아 황량한 이른 봄 잔디밭 등을 밝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짙은 자주색이나 핑크색의 튤립이 한꺼번에 심어져있는 경관은 멀리서도 강렬하게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주며 핑크색 알리움(Allium)과 흰색 크로커스(Crocus)처럼 여러 종의 구근을 혼합해서 심어도 화사한 봄을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개화기간이 약간씩 틀린 구근들을 혼합하여 식재하면 끊임없이 피어나는 봄의 색채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추식 구근의 활용 I.

또한 기존에 식재를 해 놓은 곳이라도 생육시기가 겹치지 않고 식재가 쉽기 때문에 (꼬챙이로 구멍을 파고 심은 후 흙만 덮어주면 됩니다.) 구근끼리의 혼합식재는 물론 기타 야생화와의 혼합식재도 추천할 만 합니다. 오히려 이른 봄 화려한 꽃을 감상하고 다시 기존 식물이 생육, 개화하므로 계절감과 생생한 감동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봄 축제에서 평범한 길거리의 도로변까지 향기로운 추식구근을 적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추식 구근의 활용 II.

평범한 조경에서 벗어나 작은 면적이라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출하려는 시선이 필요하고, 추식구근이 그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음 봄에는 추식구근의 튤립(Tulipa), 수선화(Narcissus) 그 외 무스카리(Muscari), 알리움(Allium) 등 다양한 종류의 추식구근들로 조경연출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서두르세요. ^^



구근 식재후 성장 모습



성장후 정원의 재탄생 모습



다목적가위 적과가위 전지가위 낫 양손가위

4계절 변치 않는 수확의 즐거움

4Season
포시즌 원예용품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23 | 소비자상담실 : 080-022-3211

www.dorcoliving.co.kr

11월 체크 리스트

- 기록에 있던 식물들은 정령향고 겨울 정령원에 심겨질 때 나무나 관목은 11월이 지나기 전에 혹은 너무 추워지기 전에 심어주어야 한다.

- 라식/수준을 심고 싶다면 이때 심어주는 것이 좋다. 나무가 휴식을 취하는 휴면기 때 옮겨주면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고 한다.

- 시골에서는 신물과 12년생 신물로 생물을 다한 신물꾼은 완전치 않게해 주고 산지렁이처럼 생긴 모르 흙을 뒤집어 가져 잡초제거와 흙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 영양분 투과한 화분을 만들어 준다. 우리나라에서 소를 이용해 밭을 고른 것처럼 밭을 뒤집어 주는 일은 화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 다. 물론 너무 깊은 정도로 밭을 다 고르는 것은 아니다. 신물을 심어야 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곳이나 잡초가 너무 많아 신물을 심을 수 없는 곳, 돌이 너무 많이 있는 곳을 주로 하여 정리해 주는 것이다.

* 단,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흡인 경우에는 갈아 떨어주는 것만으로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양분이 있는 혼합토를 위에 덮어주고 포크로 아래 흙과 섞어주는 것이 좋다.

- 전체적인 정원을 둘러보아 냉해, 반하량의 피해 또는 물이 얼거나 배수가 잘 안되어 나무 뿌리가 손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놓아야 한다.

- 새롭고 디자인을 따를 때는 본문은 자성이 꼭 다른 디자인에도 키우고 싶은 인물들로 제외하고 정리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나무나 관목은 이시기에 위치를 잡아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가을에 떨어진 낙엽은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긴 하지만 11월에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한다. 잔디 위에 떨어진 낙엽을 그냥 방치해 두면 잔디가 병들거나 색이 변한다. 갈퀴로 긁어 모아 정리한 낙엽은 따로 모아서 비료를 만들 때 쓰는 것이 좋다.



겨울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 심어준 나무나 약한 나무는 지지대를 만들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 ☒ 울타리 만들기

우리나라 겨울 정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상부가 살
어있는 경우가 없어 황량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말채나무와 같이
줄기에 빨강 혹은 노랑 등의 색이 있어 잎이 없을 때에도 화려함을
나타내 주는 재료들이 필요하다. 이런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화
단 주위로 경계를 만들어 주면 꽃이 없어도 보기 좋은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영국에서는 노트화단이라고 하여 회양목이나 주목으로 화단의
경계를 만들고 다양한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꽃을 삼지 않아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울타리 만드는 방법〉

1. 만들꼬자 하는 곳 양 쪽 끝에 나무 가지를 꽂고 실을 연결하여 일직선이 되게 한다.
2. 기선으로 만들어 놓은 실선 옆으로 당을 파준다. 파놓은 당 속에 영양분이 들어가게 위에 걸쳐내었던 흙을 조금씩 넣어주거나 혼합토를 넣어 주는 것이 좋다.
3. 파놓은 구멍에 일렬로 심을 나무나 관목을 일정간격을 두고 열식줄을 치어 심음을 해준다.
4. 다 심고 난 후 자석이 원하는 높기로 잘라준다.



울타리 형태로 화단의 경계를 만들어 준 후 그 안에 초화류를 심거나 상록수를 토피어리로 만들어 디자인을 하였다. 겨울에 초화류가 없어도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일상 생활에서 11월은 지나왔던 그 해를 다시 되돌아 보는 시기이다. 열심히 일하며 빠르게 적었던 다이어리도 어느새 마지막 장을 향해가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 준비한다. 10월은 어떤 정원을 만들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11월은 드디어 새로운 정원을 만들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기는 4월이나 5월이다.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혹은 주변에 정원들이 푸릇 푸릇 해 질 때 나도 한번 정원을 꾸며 봐야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이젠 이미 좀 늦었다. 사람에게 좋은 시기가 아닌 식물에게 좋은 시기는 그 전 해에 벌써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 부지런히 지금부터 어떻게 정원을 꾸밀지 생각해 보자.



11월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겨울을 알리는 늘 푸른 나무(상록수)들의 초록 잎들이 어느 때 보다 더 푸르르다. 벌써부터 호랑이가시나무는 겨우내 배고파 할 동물들을 위해 빨간 열매를 선보인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쓰는 빨간 열매에 가시가 달린 초록색 잎이 이 호랑이가시 나무이다. 겨울 정원에 어울리는 나무는 무엇인지 어떤 식물들을 심어야 겨울에도 삭막한 정원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유지 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자.



글 사진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토피어리로 꾸민 정원의 모습

우리나라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토피어리와 같이 인위적인 모습의 정원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다. 늘 자연과 함께라는 생각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져오는 것이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겨울에 황량하게 변하는 그대로를 놔두는 것 보다 식물의 색채나 질감을 표현하여 사계절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다양한 정원의 모습도 연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꽃을 제외하고 화양목을 이용하여 만든 정원. 바닥은 타일로 포장되어 있어 잡초 관리가 용이하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생산활동이자 공존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텃밭을 일구는 예술가가 있다. 생명 소비의 양이 극대화된 도시에서 소비를 줄이고, 생명 생산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텃밭을 가꾸고 또한 예술작업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경래 작가의 아담스가든을 소개한다.

글 사진 김 지 태

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미래'전에는 텃밭을 주제로 한 독특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텃밭을 일구는 텃밭지기이자 미술가인 이경래 작가가 만든 '아담스 가든'이다. 이경래 작가는 실내 대안텃밭을 만들어 식물드로잉이라는 방식으로 상추나 깻잎, 고추 등을 키우는 가드너다. 시각적 조화와 기능의 효율성을 통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존을 위한 작은 시작임을 그는 예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습공간(논)이면서 빗물을 이용한 물 저장공간



허브류를 위한 공간생물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정화시키는 부레옥잠, 미나리 등 식물이나 물 정화에 도움이 되는 야생초들을 함께 길러도 좋다. 습공간 안에서 생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생 생물들이 자생할 수 있게 되었다.

허브류를 위한 공간



허브류에 적당한 25cm ~ 30cm의 흙을 채웠다. 키우던 바질과 민트를 식재했다.

쌈채소를 키우는 공간



쌈채소를 키우기 위해 흙높이를 15cm ~ 20cm 이하로 채웠다. 가을이라 쌈채소 모종이 없어서 기르던 딸기를 심었다. 도시텃밭은 작물을 키우는 목적 외에 가드닝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작은 소국을 함께 심었다. 심미적 만족도 주면서 벌이나 나비 등 식물 수분에 도움을 주는 벌레들을 모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한련화와 부추 등도 함께 식재했다.

새싹채소를 키우는 모판



모종을 키워내는 모판으로 새싹채소를 키우기 좋은 높이에 설치했다. 아마란스 씨앗과 밀싹을 키웠는데 밀싹은 잘라서 국과 켈러드 요리의 재료로 사용했다.

열매채소를 수확하기 위한 공간



열매채소를 키우기 위해 40cm 이상의 흙을 채운 공간. 물 순환의 마지막 지점이고 여분의 물을 다시 물 저장 공간으로 보내기 위해 모티를 달았고 태양광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가동된다. 텃밭에서 키우던 고추와 가지 등을 심었다.

공간을 가져오기'이다. 소비의 산물이자 증표인 영수증들로 소비도시를 표현했다.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종이는 감열지다. 작가는 스스로의 생활을 체크하기 위해 몇 년간 모았던 영수증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영수증들에 다리미를 이용해 열로 그림을 그려 도시를 만들었다. 텃밭을 이용해서는 작은 공간에서 생태순환적인 농업을 표현하고자 했다. 빗물을 이용한 생태 순환적 농사를 재현하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농사법 대신 삼투압을 이용한 농법, 그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텃밭 모듈 등을 구상했다.

아담스 가든 작가노트

이경래

양을 확장시켜 만든 인류 도시에서 공존을 위한 대안은?

인류의 도시는 '양(量)'을 확장시키며 발전해 왔다. 지금의 시대는 지구 생명체의 공존을 생각해야 하는 '환경시대'라 부른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존을 위한 '양(量)'의 조절이 필요하다. '생명소비의 양'이 극대화된 도시에 소비를 줄이고, '생명 생산의 양'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명을 위해 내 생명을 유지한다. 텃밭을 일구는 삶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생산 활동이며 공존을 위한 미래적 대안이다.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고, 자유롭고, 개성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런 삶을 위해 빠르게 살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 미래를 향해가지만 현재만 살아가며 과거를 채울 뿐이다. 생인 과거의 모토인 경험성이 되어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추억으로 기억되어 영(靈)의 건강이 튼튼해지고 역사로 기억되어 미래 세대의 자양분이 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결심했다! 미루고 버렸던 행복한 현재의 삶을 살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태도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다. 나의 행복은 '물(物)'의 소유가 아닌 시간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됐다.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 시간의 주인이 되자!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런 삶을 현재시간으로 채워가겠다.

습관을 통한 회복과 의(衣) 식(食) 주(宙) 영(靈)

일관되게 현재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혼자만의 삶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관계의 긴밀한 틀로 빠져 진 현대의 삶은 더욱 그렇다. 더구나 긴 시간 동안 자본이 주는 달콤함을 아무런 비판 없이 내 일상 안으로 수용해 왔다.

채워진 시간만큼 회복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농경생활의 유전자를 갖고 있다. 위로 몇 대 올라가지 않아도 분명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선조와 닮아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조용히 쉬고 있는 생활유전자의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실천의 횟수를 늘리고 가치 있는 불편함을 즐기며, 현대사회와 공존의 방법을 찾아가며 지내는 것이다. 참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추위와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해 줄 옷과 생명의 에너지원인 양식과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제공해주는 집 그리고 건강한 영혼이다. 내 삶에서의 '의, 식, 주, 영'의 의미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양의 크기를 가능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돈을 쫓는 생활에서 시간을 되찾는 생활로 전환하면서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은 많아졌다. 먼저 냉장고 사이지가 작아졌고 쇼핑의 횟수가 줄었으며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책이 늘었고 잠자는 시간이 늘었고 웃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요즘 많은 시간을 '영'을 건강하게 해 줄 뜨개질, 바느질,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집 꾸미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놀기'에 빠져있다. 이것은 적당한 돈벌이와 적당한 자급자족의 삶이 내게 만들어 준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행복한 삶이다.



공존을 위한 바른 먹거리



공존을 위한 바른 먹거리와 적정의 식문화화를 생각하는 내용을 새싹 그림으로 표현했다. 붉은 아라란스 새싹과 푸른 무 새싹을 이용했다.

6강 실내원에 식물들의 디자인

- 실내원예의 근본인 열대식물은 햇빛 많은 것 같지만 사실 60~70%정도 가려져 있음

→ 반그늘로 인식되기 때문에 배란다 및 실내에 적응할 수 있다.

- 실내원에 식물을 고를 때 원산지(기후)를 무시하지 말고 그 특성을 이해해라!

- 월동기후의 기준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예를 들어 일본원산지의 수호초의 경우 영하 5℃까지 생육 가능하다. 이 수호초를 워싱턴에서 키운다면? 대서양의 바람을 타고 충분한 습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더 추워지더라도 생육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영하 10℃까지 내려가면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생육이 어렵다.



실내화분의 물주기 TIP

- ① 겉흙이 말랐을 때: 화분크기의 10%정도 준다
- ② 화분을 두드려본다: 쿵쿵 소리가 무겁게 나면 수분이 있다는 것이고 쿵쿵하면서 가벼운 소리는 화분 속 수분이 없다는 것이다.
- ③ 식물 잎을 만져본다: 잎이 뻣뻣하면 수분이 충분하고 여리고 처지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④ 잎의 윤기: 윤기가 있으면 수분이 충분, 윤기가 부족하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⑤ 습도계: 40% 이하는 수분 부족하다는 것이다. → ②, ③, ④의 경우 많은 경험이 필요하므로 항상 식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가평리 수강생의 들꽃제상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 아외로 나온 첫 수업이고 4,000여명의 수업공간에 모두 환한 미소로 수업 후 기념사진



Passion Fruit를 컨테이너 박스에 성장하여 열매를 귀게 맺었고 맛도 진한 열대식물 과일맛을 보았다.



정갈한 간식 준비



들꽃제상은 운실이 4동 준비된 교육장이었고 많은 식물들이 있어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볼 수 있어서 좋은 학습 시간이었다.

7강 식물의 종자번식과 육묘

- 유기물만 잘 주면 대부분의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다.
- 퇴비를 만들 때 효소나 질과 숯을 함께 넣어주면 좋다.



겨울철 수분관리 TIP

- 겨울에 물을 자주주면 좋지 않을까? 침수가 되면 썩어버려 좋지 않다.
- 물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건조성 동해로 식물이 죽을 수 있다.
- 적당한 수분 공급으로 물이 얼어버리면 오히려 얼음이 식물을 감싸고 있어 동해로 조직이 터지지 않도록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 화학적 방제의 비용이 100이상이면 같은 효과를 내는데 생물학적 방제는 비용이 100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적 현실적, 상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최대한의 생물학적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방향을 추구해야한다.
- 삼목 번식이 잘 되지 않는 식물들은 휘문으로 번식시킬 수 있다.
- 관목에서 휘문이 가능한 수종: 명자나무, 라일락, 앵두



식물의 삼목 심습강좌-수험생들의 가장 인기 있는 수업시간



삼목 심습 과정시 삼목후의 오류 등을 교수진이 재검토 하여 정원사로 나아가는 한발 앞걸음을 다짐한다. 누구든 자를 수 있으나 정확한 교수의 점검으로 정확한 수업의 결과를 확인함.



병투에 쌓인 증거물로 수업의 과정이 정확한 지를 점검하며, 초보자 정원사의 형성한 실습에 교수진은 망연 실색 하고 수강생들은 완벽한 교수의 검수과정에서 모두 웃음을 터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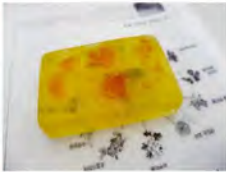
8강 허브와 아로마 테라피

· 에센셜 오일의 추출방법

- ① 수증기 증류법(Steam Distillation)
→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캐모마일 등
- ② 냉압착법(Cold Pressed)
→ 감귤계(Citrus계열): 레몬, 버가못, 만다린, 오렌지, 그레이프프루트 등
- ③ 솔벤트 추출법(Solvent Extraction)
→ 자스민 엑스루트, 로즈 엑스루트 등
- ④ 이산화탄소 추출법

· 에센셜 오일의 종류

- ① 기분 UP(안티스트레스): 그레이프후트, 버가못, 레몬, 로즈우드 등
- ② 리후레쉬(상쾌, 두통): 페퍼민트, 라벤더, 파인, 오렌지 등
- ③ 숙면(RELAX): 라벤더, 오렌지, 프랑킨센스 등
- ④ 집중력: 로즈마리, 바질, 주니퍼베리 등



사단법인 미추홀 화예작가협회 박선영이사장 취임식 열려

2014. 10.7

2002년 설립된 사단법인 미추홀 화예작가협회 제5대 회장에 박선영 이사장의 취임식이 작가협회 회원 및 많은 관련인사들의 축하를 받으며 10월 7일 인천 송도의 미추홀타워 21층 씨푸드 뷔페 피에스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취임식에서 박이사장은 꽃으로 하나 되는 협회를 만들자고 미추홀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 했고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인천은 이제 국제도시로 한걸음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과 미추홀의 사회적 활동을 확장하여 회원간의 유대 및 사회적 참여도 넓혀 작은 소통에서 자유로운 소통까지도 아우르는 개개인 협회회원들의 진화적 발전을 하기를 포부으로도 담으셨다.

박선영 이사장의 꽃 사랑은 파종에서 새싹을 보호 관리하여 절화식물로의 과정을 즐기는 순수 정원사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는 식물의 기본성장 과정도 공부하여 식물을 알고 꽃을 대하는 박선영 이사장의 꽃과의 사랑은 남다르다. 이를 바탕으로 미추홀의 회원님들과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좀 더 협회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야를 넓혀 본부인 인천(미추홀) 도시와 관련된 국제적 관련교류 활동과 국제적 도시협회와의 MOU를 통한 사회적 발전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미추홀 작가 협회는 4분의 고문님을 모시고 회원님들의 보다 깊은 창의력이 아름다운 창작물로 승화하며, 각 개인회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3년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짐하며, 꽃과 함께하는 창의적 꽃 예술문화 행사가 우리 사회의 지변에 확대 되어야 하는 미추홀의 회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다짐은 선진국 대열에 동반하는 우리의 정원문화가 떠오르는 시간에 이미 도래하였다. 아마도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나라 처럼 절화꽃이 꽃 문화를 먼저 알려주었으며,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대하는 기쁨처럼 각 회원들의 창의력이 추가된 작품세계의 장을 모든 미추홀의 모든 회원님들과 확대자는 의지가 취임인사에서도 개개인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박선영회장은 그 일에 주력을 다한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사에 나선 본지 발행인 김영채 박사는 꽃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미추홀 작가협회의 활동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윤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본지에서 운영하는 이천그린아카데미 출신으로 현재 원우회장직도 겸하고 있어 정원과 꽃으로 아름답고 밝은 사회의 생활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참고: 미추홀의 역사적 명칭>

인천의 옛 지명은 '미추홀'이란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삼국시대 백제 초기의 인천 지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매소홀현(買召忽縣)을 일명 「미추홀(彌鄒忽)이라고 한다」라고 하며 삼국시대 고구려가 이곳에 「매소홀현」을 두었을 때, 이미 「미추홀」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 인천은 원래 「미추홀」로 불려 오다가 그 후 고구려 시대에 「매소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 「미추홀(彌鄒忽)은 「인천(仁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미추홀」이 곧 「인천」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된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레디쉬와 배추, 호박과 배, 사과, 빵, 결안, 무우, 오이, 당근 등을 바구니에 담아
창식한 풍성한 추수감사절 장식물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각종과실과 채소, 결안등을 가지고 창식한 추수감사절 장식물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4째 목요일에 행사가 진행되는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다. 한국에서는 추석이 있지만 미국문화가 침식되어 11월 3째주 일요일에 행사한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온 식구들이 모여 터키와 쿠키를 만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Gardenin TIP 가든인 TIP

[추수감사절]

1621년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사추세츠주에 도착해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그 중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자, 청교도들은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옥수수나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의 청교도들의 의지가 아직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지금도 과거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구운 칠면조 요리, 크렌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등을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국무부 산하 미국공보처(PIA) 및 기타 미국 정부 자료 발췌

또 하나 큰 행사로는 백화점 세일이다. 미국의 세일은 정말 말 그대로 세일이다. 1000불짜리가 250불에 세일하기도 하며 400불짜리가 40불에 세일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 년 동안 사야 할 물건들을 이때를 기다렸다가 사는 경우가 많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많은 고생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칠팔해 수확한 농산물이 하나님에 돌보아 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켰던 것이다. 당시 그곳에 야생 칠면조와 사슴이 많았으므로 이를 잡아 요리해서 먹은 것이 터키요리와 쿠키를 만들어 먹게 되었고 터키 고기가 너무 딱딱하여 으갠 감자나 고구마에 그레이비소스를 얹어서 함께 먹었으며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크렌베리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먹고 호박파이 같은 것과 약간의 채소들을 곁들여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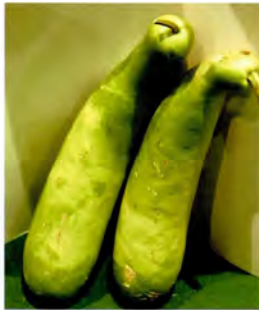




처음에는 메사추세츠주와 커네티컷주에서만 기념하던 것이 초대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이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어 미국전역에서 지키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 이고 11월 4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10월 1일이 되면 할로윈데이 장식 준비에 바쁘고 할로윈데이가 끝나자마자 추수감사절 장식으로 바로 들어간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 장식으로 연결되어 10월부터 12월 25일까지는 미국을 돌아다니는데 각 집에서 장식해 놓은 것만 보아도 심심치 않게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추수감사절 장식품으로는 그해에 추수한 농산물을 마늘을 줄줄이 엮어서 매달거나 고추, 양파, 빵, 과자, 호박, 양배, 당근, 사과, 감자, 피망, 가지, 화초호박, 옥수수, 쫄면, 부로커리, 포도, 치즈, 낙엽으로 만든 리스, 아몬드, 월넛, 땅콩등을 꿰어 매어 매달거나 러프한 바구니나 나무 그릇에 넣어 장식한다.



가을 실내정원 준비

심지로 물 관리하는
실내정원 II

수직공간을 자유롭게 부착형 화분 어디세요?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농업연구사

지난 호에서 심지 관수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재활용 PET병 정원 만들기에 대해 배워보았다. 이번 호에는 실내 좁은 공간에서도 녹색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부착형 심지화분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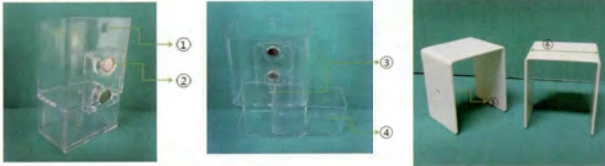
부착형 심지 화분은 심지화분의 원리와 강력한 자석이 부착된 부착형 화분이 결합된 것으로, 실내 소형 분화 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 개발하였다.

부착형 심지화분은 배수구멍이 없어 물이 빠질 염려가 없고, 투명한 용기로 되어 있어 식물이 물이 필요한 시점을 알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을 제거해 줄로 뿌리의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또 양극이 붙는 성질을 활용한 별도의 자석 부착판을

만 아니라 투명한 유리를 경계로 하여 공중에 식물이 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착형 심지화분은 기능성 가구와 결합하여 투명 파티션 정원장치, 거울형 파티션정원장치, 안내형 정원 등의 새로운 정원 모델도 제시하였다. 부착형 심지화분은 물 관리가 어려운 초보자들과 공공장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원을 꾸밀 수 있고, 고급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화훼 분화 상품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부착형 심지화분의 특징



- 1 자석이 붙지 않는 곳에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음
- 2 용기에 자석 부착판이 붙어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 유리, 거울, 철 벽면 등에 잘 달라붙음
- 3 심지를 끼울 수 있는 구멍(심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배수구멍으로 이용 가능)
- 4 서랍형태로 되어 있는 물받이 통으로 벽에 붙인 채로 물을 줄 수 있음
- 5 파티션 걸개
- 6 파티션 두께에 따라 걸개를 선택할 수 있음

2.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실내 식물들



3. 부착형 심지화분 만들기 Step by Step



· 지제부 : 뿌리와 줄기가 시작하는 부위 즉, 식물에 있어 토양과 지상부의 경계 부위

4. 부착형 심지화분의 관리요령

1) 자석 부착판 붙이기

자석의 힘이 세어 자석 부착판이나 철면에 붙일 때 충격으로 배지가 바깥으로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른쪽의 그림을 참고하여 탈부착한다.



2) 물주는 방법

부착형 심지화분은 물을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식물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다. 토양의 수분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물이 부족하면 손쉽게 바로 채워줄 수 있다.

·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통에 물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어야 한다.

· 다육식물(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이 있는 식물)처럼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은 토양의 수분이 말랐을 때 물통에 물을 채우고, 모세관현상(물을 잘 흡수하는 천의 섬유가 모세관 구실을 하여 물을 빨아올리는 현상)으로 심지가 물을 충분히 빨아올린 다음에는 물통에 물을 버린 후 부착한다.

·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겨울철이나 건조형 식물그룹은 심지를 통해 흠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후에는 물받이 통의 물을 비워 주는 것이 좋다.



5. 부착형 심지화분의 적용

1.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한 나의 사무실 (그린 오피스 어렵지 않아요!)



그림, 사무실 파티션, 가정의 방장고, 에어컨 등에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하여 나만의 맞춤형 실내 정원을 꾸밀 수 있어요.

2. 부착형 화분과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 연출방법



부착형 심지화분을 이용한 거울형정원



그림. 투명 파티션과 안내 기술의 실내정원이 결합한 새로운 정원모델은 많은 양의 녹색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간을 활용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부착형 심지화분을 이용한 스크린정원

3. 부착형 화분의 또 다른 변신!



그림. 자석의 부착력을 이용한 쉽게 테이블 장식



6. 부착형 심지화분의 효과

부착형 심지화분을 책상 옆 파티션에 부착하여 잘 돌보고 키우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첫째, VDT 증후군을 예방한다. 모니터에서 눈을 잠깐 떼서 이 식물을 보면,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줄여준다.
- 둘째,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보통 관엽식물 앞에서 1초당 5~10 μ g/㎤ 정도의 수분을 방출하므로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다.
- 셋째,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를 잡아먹고, 산소와 음이온을 방출한다.
- 넷째, 용기가 투명하여 기업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 광고 효과 만점으로 녹색식물과 인간, 환경,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 다섯째, 뿌리가 자라는 모습과 물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식물 관리가 편하다.

이제, 부착형 심지화분을 가까이에서 즐기십시오!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Gardenin TIP 가든인 TIP

독자들이 만드는 Q & A



병 걸린 식물, 먹어도 될까요?



글 사진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진

다른 해보다 좀 이르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하였고, 또 여름 장마도 초기에는 지지부진 하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수확이 괜찮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봄에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었고, 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가뭄으로 말라죽은 길 가의 가로수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는데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까요? 참말 다행입니다.



수확을 하거나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사다보면 병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이나 할머니의 텃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른 고구마, 썩은 배, 붉은 토마토, 곰팡이 핀 땅콩... 병든 식물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병든 식물들을 먹어도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된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병원균들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추수가 끝나면 들판에서 껌부기 이삭을 주워 모아 구워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정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병든 것들은 대개 모양새도 그리 좋지 않고 때로는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병든 식물들을 먹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맛도 좋지 않고 포도나 딸기 같은 열매들은 감염된 부분의 당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을 감고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염된 부분에는 다른 미생물들이 들어가기 쉽고, 썰기도 쉽기 때문에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풍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면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생기는 사과 고두병의 경우에는 감염된 부분이 씹씨름한 맛을 내어 입맛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병든 부분을 먹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먹었다고 하여 죽거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식물병원균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염된 부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감염된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성한 부분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기가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병든 것들은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경우도 많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쓴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몸을 똑 떼어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고 영양이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물들을 생각한다면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괜찮은 부분들은 모두 먹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식물병원균들 중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부분에는 병원균도 거의 없습니다. 병든 부분만 잘라낸다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곡류나 두류, 즉 곡식이나 콩 종류는 병들었으면 먹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들에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독성이 강한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본 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를 '균독소'라고 부릅니다. 균독소는 사람과 동물들은 물론 다른 곰팡이들에 대

해시도 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독소를 생산하는 곰팡이에 감염 또는 오염이 된 곡류나 두류의 색깔이 붉거나 검게 또는 푸르게 변하여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거나 붉게 변한 곡류나 콩 종류는 아깝더라도 먹지 말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균독소 중독증의 대표적인 예는 맥각병(ergot)에 감염된 밀 낱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맥각중독증(ergotism)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 중독증의 발생이 보고된 이래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균독소증이 일반적인 관심사가 된 것은 영국의 농장동물에 이른바 '침면조 X병'이 나타났던 196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몰랐던 이 병은 결국 Aspergillus라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독소인 'aflatoxin'에 오염된 사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독소가 사람과 동물의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균독소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맹독성이며 오염된 사료를 먹은 동물의 젖에서도 검출되고,



주로 간을 공격하며, 돌연변이원, 기형유발원, 발암원입니다. 사람에게서는 곰팡이가 핀 옥수수를 자주 먹는 열대국가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시골지역에서 발생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균독소는 독성이 있는 대사산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방출되지만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자라는 균들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은 습도가 높은 채로 수확하거나 높은 상대습도 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며, 균독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균독소는 면역계를 교란하기도 하고, 그것을 먹은 동물이나 사람의 생장을 저해하기도 하는데, 이들 중 몇 종은 심지어 발암물질인 것으로 증명되기도 하였습니



우정아 DIY 재 활용 가드닝
**항아리
 뚜껑으로 만드는
 이끼 정원**



우정아 / 가든 코디네이터
 KHA(한국원에디자인협회) 향원회장

항아리 뚜껑을 활용해 동양적인 디자인으로 분위기를 바꾸며, 산속 어느 계곡에 있는 듯한 느낌의 이끼 정원으로 산비들의 풍류를 즐겨보자. 건조에 약한 식물만 하루만 물을 안주거나 공중습도가 낮으면 고사하기 쉽다. 이런 건조에 약한 식물들 이끼를 덮어 식재하면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이끼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 어느 정도 공중습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손쉽게 키울 수 있다.

Step by Step



관리법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관수량이 배수층보다 많으면 흙 속에 산소량 부족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배수층보다 적게 관수해야 한다. 건조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수시로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빈틈지 식물이므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드닝 재료



"안양도시농업한마당 축제"를 마치며

글, 사진 친환경 안양 도시농업 네트워크 / 민도정 기획팀장

안양도시농업 한마당 축제를 준비하다.



제법 날씨가 쌀쌀한 이 가을, 언제부터 이렇게 축제가 많았는지 여기저기 축제가 한창이다. 지난 2014년 9월 27일~28일 안양에서도 안양시민축제가 열렸고, 도시농업의 불모지인 이 지역에서 "친환경안양도시농업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안양 도시농업박람회 : 안양도시농업한마당'을 준비하여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실 큰 박람회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기획은 하긴 했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 달 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으로는 도저히 도시농업을 하는 각 단체를 모으고 함께 진행하기는 힘이

벽쳤다. 많은 자료 수집과 기획은 철저히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천시 모가면의 우리꽃 영농조합의 수많은 전시 경험과 도시농업의 박람회등의 조언을 얻기로 하였다. 담당 직원들의 경험 능력과 설명으로 5m x 5m 의 싸이즈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다.

30여 차례의 전화를 하며 상담을 해주시고, 전문인의 조언과 경험은 식물을 준비하는 단체로서 정말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정성껏 돌봄을 전시하는 그 자체이다. 관심과 격려로 조언을 주신 '우리꽃' 실무진의 도움으로 '제1회 안양도시농업한마당'은 성황리에 행사를 치러 낼 수 있었다.

도시농업한마당' 행사의 목표로 고민하다





개인적으로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농장 정도의 텃밭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농사꾼은 될 수 없다는 도시농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스러웠다.

도시농업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흔히들 "경작본능"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경작본능에서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발전된 것이다. 우리가 작물을 키우고 보살피고 거두고 먹고 즐기는 데서 자연스럽게 문화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도시농업한마당'에서는 경작본능! 인간의 문화는 경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 바로 마을의 텃밭을 중심으로 작물을 함께 키우고 먹고 나누며 함께 문화를 즐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었다.

전시는 6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는데 4개의 부스는 우리 '친환경안양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전시운영하고, 나머지 부스 2개는 '정다운 골목'과 '식생활교육안양네트워크', 두 단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한 개씩 부스를 운영 진행하였다. 우리가 진행한 부스를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첫 번째 메인 전시부스는 마을의 공원을 중심으로 채소정원을 꾸며 보았다. 기획했던 것보다 부스가 작아서 기획안대로 되지 못하고 축소되었다. '우리꽃'에서 빌려온 '웰컴인형'을 입구에 설치하여, 마을의 장승처럼 환영하면서 액을 물리치는 상징적인 의미로 놓아보았다. 전시회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포토존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인기가 좋았다.

사실 메인 전시부스는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우리꽃'의 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단단히 잡았다. 처음 꽃을 꽃차에서 내릴 때부터, 지나가던 사람들이 꽃을 사고 싶다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설치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새삼 '우리꽃'의 꽃의 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다.



옥상텃밭과 휴식공간의 텃밭을 소개하다.



두 번째 부스는 옥상텃밭과 휴식공간으로의 텃밭을 꾸며 보았다.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서 꽃과 어우러진 텃밭이었다면, 옥상공간이지만 본격적인 텃밭작물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스는 일명 '재활용 컨테이너 부스'였다. 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페트병이나 강통 등의 컨테이너들을 이용한 화분을 선보였다. 특히나 야심차게 준비한 파레트를 이용하여 '파레트 텃밭'을 만들어 보았다. 파레트는 화물을 운송하고 지게차가 들어 올릴 수 있게 밑에 뚫려 있는 나무 판들이다. 버려지는 것이라 구하기 쉬운 줄 알았지만,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상정도가 심한 것들이 많아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안양 농산물시장에서 도움을 받아 버려지는 것들 중 깨끗한 것을 골라서 옮기고 페인트를 하여 완성하였다. 이탈리아 레드를 칠했는데 빨간색이라고 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감이 이쁘고 오히려 초록색 작물들을 살려주고 잘 어울렸다. 이 파레트 위에 보타니컬 아트 작품을 액자에 넣어 자연스럽게 펼쳐 놓았고, 텃밭도시와 학교텃밭 수업을 했던 아이들의 텃밭 일지를 전시하였다.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기록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한다. 도시농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신만의 문화와 즐거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애이고 가장 애정이 가는 공간이었다. 사람들 역시 가장 많이 머물며 관심을 가지고 '보타니컬 아트'의 새로움과 아이들의 수준 높은 솜씨에 감탄하였다. 부스가 넓었다면 확실히 피크닉분위기를 재현하고 멋진 휴식공간으로 재 탄생할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적정기술부스를 창조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부스는 적정기술부스였다. 소박한 에너지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햇빛건조기와 음식물 퇴비화통을 준비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위치를 잘 못 잡았는지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네 번째 부스는 토종씨앗과 농기구를 전시하였다. 토종이란 지역에 기후와 환경에 잘 적응 된 품종들이고 종자주권을 지키려는 가장 첫걸음이다. '우리꽃'에서 추구하는 독립 품종의 가치와도 잘 맞는 부스라고 생각한다. 씨드림에서 전시회 토종키트를 빌려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구하기 힘든 농기구 역시 귀농운동본부에서 흔쾌히 빌려주어 전시를 할 수 있었다. 탈곡기 같은 경우 대야미 소농학교 분들이 매해 벼농사를 하며 벼 탈곡을 할 때 쓰인다고 한다. 올해도 쓸 티이니 잘 다루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귀한 것을 잘 전시하였다. 이 부스는 토끼와 닭 그리고 성문중 학교아이들의 허수아비 등 신기한 것들이 많아 꼬마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정다운 골목은 차를 다니지 않게 하고 마을 골목을 상차텃밭으로 작물을 기르고 아이들을 뛰어 놀 수 있게 공간으로 만들었다. 골목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살아나고 문화가 살아나는 동네가 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주로 사진을 전시하였고,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해 즐거운 모습들을 보였다. 식생활교육안양네트에서는 농사와 먹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에, 벼가 밥이 되는 이야기를 주제로 벼씨를 관찰하고 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두 단체 역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진행을 하는 데 즐거웠고 다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행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했는지 알 수 가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 다만 안 것은 우리 몇 명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의 수많은 민폐를 끼치며, 아니 끼게이 도와 주시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비전문가로서 사실 행사를 치러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우리꽃'에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주셨고 자신감을 주셨다. 행사규모가 크지 않지만, 평소애 내가 텃밭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생

각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도시농업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상상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텃밭과 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공간이어서? 근대가 되어 공동체는 대부분 해체되고 '개인'을 발전하며 개인이 존중되고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점점 개인의 공간은 줄어들고 공적인 공간이 늘어나고, 어디에도 사적인 공간은 없다. 사적인 공간은 화장실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만의 텃밭, 나만의 정원 등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사적인 취향을 바탕을 정원을 꾸미길 원하는데, 작은 전시회이자 행사이지만 그런 개인의 취향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화분 하나 놓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충돌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소한 것들이 갈등이 되었다. 결국 정원이나 텃밭이 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원이나 공동체의 텃밭 및 전시회의 설치 등은 공동의 취향을 맞추어나가는 함의를 맞추어나가는 가장 어려운 소용의 과정이었다. 정말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맞는 정원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다.

삶의 근본인 공동체를 복원 가치도 느끼는 도시농업의 근간

이번 행사를 통해서 이제까지 도시농업만을 생각해 왔었는데, 도시농업 만으로 뭔가 허전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도시농업이 자급자족의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원예나 '꽃'에 대해서는 꽃꽂이나 형식적인 조형미를 추구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꽃'의 꽃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 우리 집 정원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단독주택에 살았고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 집엔 정원이 있었다.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쁜정원이 되었겠지만, 시골 분들이라서 마당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 는 늘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단풍나무와 황매화 그리고 라일락나무가 있었다. 특히 라일락나무는 15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실은 그 라일락 나무가 나를 기억해줄 거라고 상상했고 아직도 라일락 꽃 필 때 진한 라일락향이 그리웠다. 공원의 나무가 나를 기억하길 힘들 것이다. 나의 정원, 나의 텃밭에서 나를 기억하는 꽃과 나무를 키우고 싶어진다. 이런 마음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텃밭과 어우러진 '우리꽃' 들을 상상해 본다.

정원문화포럼 창립총회



일자 : 2014.09.25(목)~(금)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B1) 그랜드홀

문화예술 · 산림 · 원예 · 조경 등 각 분야가 융합해 출범하는 비영리단체
‘정원문화포럼’(초대 회장 송정섭)이 창립하여,
지난10월 25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정원문화포럼은 가드닝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원문화포럼 헌장”도 채택하여 선포하였다.

정원문화포럼 헌장

우리는 정원의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가치를 행동이념으로 삼고 실천한다.

1. 정원은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채널이다
2. 정원 가꾸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결정 짓는 척도다
3. 정원은 식물 · 인간 · 환경이 공존하는 터전이다
4. 정원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결합한 복합산업이다
5. 정원문화가 건강히 뿌리내리도록 선도역할을 한다
6. 정원의 경관적, 힐링적, 기능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 확산한다
7. 특정 분야에 끌리지 않고 정원문화 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8. 정원가꾸기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생명 · 식물 · 자연의 가치를 전달한다



The Gate, NY, Central Park의 공공미술사인 공공정원인에 공공미술 전시장설치로 정원 방문객의 효과를 누렸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감을 국회부의장과 이정현 국회의원의 축하, 국회의원도
종환 시인창립축하시 낭송, 김기선 (사)한국원예학회(서울대 교수)의 축하
가 이어졌다. 특히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산업화’라는 큰
명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찾고, 산림청의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고 축사를 전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조경진 서울대 교수의 ‘정원, 잊고 살았던 우리의 생활문화’
의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의 선, 곡, 흐름이 있는 정원모델(이병철 아침고요
수목원 이사), △현대적 감각의 실용정원 모델(한승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
사), △한국의 가든쇼와 정원문화운동(정대현 한국조경신문 대표), △야생화

의 산업화 및 정원문화 활성화 방안(민경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 토론은 송정섭 정원문화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김용관 과장(산림청), △김용식 회장(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윤주 연구
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양주 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박공영 대표(우리꽃)가 참석하여 융합으로의 사회 전반적인 정원
문화의 진화를 위한 행사로 나아가기를 약 200여명의 젊은 세대와 참석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진지 하게 회의를 마무리 하
였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도시민들
의 가드닝 기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시급한 과제는 이
러한 변화에 따라 도시민들이 가드닝 기능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원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원의 즐거움, 가드닝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이 자꾸만 녹지면적
축소 일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퇴보에 대해서 녹지, 정원, 조경, 원
예, 임학 분야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막아내야 할 사
명도 있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동과 요구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순환 구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으로 들어가면 정원 진흥법, 산림정동
의 사실정원 주택과 도시농업의 포함한 공동위원회,
정원의 기구 검토와 정원 전문가 정원법 분야, 농림
청과 산림청 부처 협약의 지향과 진흥개혁 부처 의견
과 정원문화 내 방향 축소 수목원 공개정원과 대지조
정의 공개정원과 사실정원의 지원 규정, 진흥법 위원
회 정원의 본질 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원 문화 현장이
관리 보존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이처럼 ‘융합’이란



나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 뭉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
어내기 위해서는 내 것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정원문화는 무엇보다 융
합적인 그릇이 필요하다. 정원문화가 뜨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자세는 선 굵기가 아니라 융합이다. 그래야 정원문화
도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꽃 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원의 가치는 교육 투자에 준하여야 하며, 윤주 박사는 관광학 박사로서
관광 자원의 확산으로 생활인지도를 여가문화의 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는 INSE 여가문화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삶의 질이 문
화를 높인다. 문화의 고유성과 타 문화의 접목을 융합하여 신규 창조 문화로 접목하는 정원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뉴욕 설치 예술가의 Central Park · The Gate / 예술촌은 일반적 관광객이 15만명에서 400만명의 관객이 흥미를 갖고 방
문하는 장소가 된 것 입니다. 관광자원과 부가까지 창출의 아이템을 개발 촉진하고 스토리를 엮어서 설명하는 해설사양성과, 해
설사의 전문 문화적 기능 스토리로 문화관광 창출을 하며, 신규인력 창출의 인력육성과 문화예술 접목의 의견 토론도 부각되었
다. 천전국의 방문국을 머리에 떠오르며 자연의 경관을 가꾸는 일도 열심으로 하였지만 문화적 융합의 시점을 찾아 전체적인 안
목으로의 정원 문화를 이룬다면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정원문화 사업도 사계절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를 즐기고 나누는 시
간이 될 것이다.



파

영양과 약효가 뛰어난 맛의 조절사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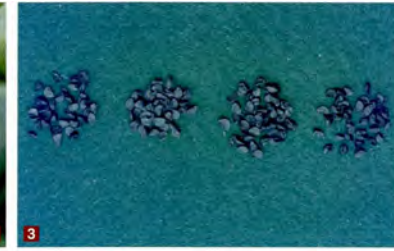
green onion



1 한로파. 완주군 용진면 유급네73씨가 재배해온 파

대부분의 한식 음식에서 파가 빠지면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다. 김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 된장찌개, 곰탕, 알찜, 파간장... 아마도 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예를 들기 힘들 정도이다. 파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을 낼 수 있고 고기와 같은 데서 나는 누린내나 잡냄새를 없애고 음식을 상큼한 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파는 한민족이 오랜 예로부터 많이 먹어왔고 좋아했다. 그러나 파는 어린아이들은 좋아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더 좋아지게 마련이다. 그만큼 서서히 파의 맛과 향이 우리들의 몸과 친해지고 길들어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파는 양파와는 달리 마늘, 부추와 같은 속에 속한다. 종명의 *fistulosum*은 대롱 모양이라는 의미로 파알의 형태가 관 모양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파 속(屬)의 냄새가 나는 성분은 뿌리 부분에 많이 들어 있는 알릴을 함유하기 때문



인데 세포가 파괴되면 산소와 알리나제가 작용해서 알릴을 분해하여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알리신(Allicin)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파 100g 중에는 비타민 C가 33mg이 들어 있어 토마토의 1.5배이다. 그 외에도 비타민 A·B1·B2 및 칼슘, 인, 철 등이 골고루 들어 있다. 파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많이 쓰여 왔다. 파속의 알리신이 비타민 B1을 활성화하여 특정병원균인 디프테리아균, 결핵균, 적리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에 대해 강한 정균(停菌) 작용이 있다. 또 효능면에서 땀을 많이 내게 하므로 감기, 몸살 침약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한편 해독과 소종(消腫)의 작용도 있고 복통이나 구충, 거담에도 쓰인다. 감기몸살에 걸렸을 때 파뿌리에 생강을 넣고 끓여 마시면 몸이 속까지 따뜻해지며 땀이 나고 열이 떨어진다. 가래가 끼거나 목이 아플 때는 파를 잘게 썰어서 청주와 물을 넣고 10분 정도 달여 마시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파속에 들어 있는 자극 성분인 allyl sulfate로 인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파는 백합과의 마늘, 부추와 같은 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재배 상 1~2년생으로 취급되고 있다. 꽃은 5월경에 개화하고 열매는 삭과로서 9월에 익고 종자는 검은빛이며 번식은 종자나 포기나누기로 한다. 파는 여름파형 품종과 겨울파형 및 중간형품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름파(외대파 또는 줄기파)는 염초부분이 길고 굵게 자라는 품종이다. 석창, 사촌, 금장 품종이 이에 속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생장이 계속되며 동기간 휴면하므로 내한성도 강한 편이다. 겨울파(잎파)는 저온기가 되어도 휴면이 되지 않는 품종들로 여름 더위에는 강하나 내한성이 약한 편이다. 이에 속하는 품종으로 구조파나 서울백파가 있다. 잎파는 식물체가 가늘고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식물체가 크지만 가지를 많이 치는 겹

2. 파꽃: 봄에 잎사이로부터 꽃대가 올라와서 잎과 마찬가지로 속이 빈 원주상을 나타낸다. 그 선단에 화구(花球)를 형성하며 소경(小梗)을 가진 백색의 작은꽃이 많이 달린다.
3. 파의 종자: 1식관에서 6개의 종자가 형성되어 9월에 익으며 3개의 능선이 있다. 종자는 검은빛이며 참깨 정도의 크기이다. 왼쪽부터 재래종, 황파, 가랑파, 대파.
4. 외대파: 전복 김치 금구만 월전에서 수집하였으며 키가 가랑파와 비슷하나 반개장성이며 가지는 적게 치고 잎수는 3개 내외이며 잎폭은 14mm로 가랑파보다 가늘다.
5. 조선파: 의왕시 월암동에서 재배하여온 토종파인데 가지를 잘치고 잎이 가늘며 키가 크지 않은 모양이 경기도에서 많이 심었던 서울파와 비슷하다.
6. 재래파: 인성의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 같이 작고 잎이 약간 통통하고 초겨울에 잎이 죽는다. 그런데 재래파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잎이 죽지는 않는다. 또 향기가 훨씬 강해서 찹얼국 끓일 때에 좋다.
7. 가랑파: 전복 김치 청화동에서 수집하였다. 키가 57cm 내외이며 가지는 적게 치며 잎수도 4-5개 정도로 작고 잎폭은 17mm 정도로 가늘다.
8. 조선파: 의왕시 월암동에서 재배하여온 토종파의 밑부분인데 서울파 특유의 뿌리부분에 붉은색이 돌지는 않는다.

용과는 잎파로 쓰인다.

우리나라에 파가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적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재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손수한 토종으로 보존되어온 토종파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토종파는 조선파로도 불렸던 서울파였으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이 심었다. 또 서울지방의 재래종으로 잎이 짙은 녹색인 서울백파가 있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서 재배되던 구조파(九條蔥)는 분얼수가 많고 백경부가 가늘고 긴 겨울파이며 내서성이 약하나 저온기의 신장성이 강하다. 여름동안 잎파로 재배된다. 분얼성이 강하며 잎새는 연하다. 토종파인 자청파는 월성에서, 가랑파는 남원에서, 돼지파(염교)는 횡성, 평택과 연기에서 왕파는 월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모두가 키가 작으면서도 줄기 아랫부분이 통통하면서 추위에 강한 특징을 보였다. 향이 그리 좋았던 경기도에 심겨지던 서울파나 강원도의 영월군 북면에 심겨졌던 영월파, 경북 지방의 한글파, 강화의 강화파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외에도 무주의 골파, 예천의 국파, 거창의 대파, 고창의 왜파, 김제의 외대파, 안성의 재래파, 등이 재래종파로 재배되었다.

안성의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 같이 작고 밀이 약간 통통하고

초겨울에 잎이 죽는다. 그런데 재래파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잎이 죽지는 않는다. 또 향기가 훨씬 강해서 철엽국 끓일 때에 좋다. 향기 짙은 땅딸보 재래파 안성파는 안성에서 살아온 정을 수 씨의 텃밭에서 찾았다.

“저 파가 이곳에서 대를 물려 심어온 것이니 한번 보세요.” 하고 몇 포기씩 뽑아 요즈음의 개량종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같이 작고 밀이 약간 통통하고 보시다시피 초겨울에 잎이 죽어요. 그런데 재래파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죽지 않아요. 또 향기가 훨씬 강해서 철엽국엔 그만이지요.” 하면서 재래파는 키도 작고 요즈음 대파보다 왜소하지만 한번 심어 놓으면 요즈음 대파처럼 잎이 죽지 않으니 제자리에 놓아두고 언제라도 뽑아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또 대파는 늦게까지 잎이 파랗게 있는 대신 잎이 죽어서 월동이 안 된단다.

웁은 말이었다. 파는 크게 여름파와 겨울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여름파는 재래종같이 초겨울 일찍 잎이 말라 버리고 겨울파는 늦게까지 잎이 파랗게 남아 있지만 월동성이 약해서 난지형이다. 즉 우리 재래파는 여름파이고 대부분이 대파는 겨울파인 것이다.

9. **삼동고리파**(*Allium cepa* L. var. *multiplicans* Bailey): 삼충거리파 라고도하며 잎파와 파의 중간 집종으로 잎파와 유사종이다. 충북괴산 지방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지상부는 파의 형태로서 5월 상순경 생장점 끝부분에 5~6개의 주아가 달리고 각 주아마다 또 잎이 나오는데 세력이 약하여 생장점에서 나온 잎만 생장하고, 6월 상순경 생장점 끝부분에 다시 3~5개의 주아가 달린다. 새로 달린 주아에서 나온 잎 또한 세력이 약해 생장점에서 한 개의 잎만 계속 자라 끝에 주아가 1~2개 정도 달린다. 이렇게 층층으로 잎이 자라서 주아가 달리므로 삼동고리파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 겨울에 완전히 휴면하는 여름파형으로 추운지방에서 잎파로 재배된다.
10. **재래쪽파**: 쪽파, 전복 부인, 영암반식 하므로 유전적인 변이가 적고 품종분화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약간의 조만성이 있을 따름이다.
11. **쪽파의 꽃**: 쪽파는 추대하는 계통과 추대하지 않는 계통이 있으나 개화하더라도 불임이 되기 때문에 번식은 인공으로 한다.
12. **돼지파의 인경** 13. **재래쪽파**: 쪽파, 전복 부인, 영암반식 하므로 유전적인 변이가 적고 품종분화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약간의 조만성이 있을 따름이다.
14. **쪽파의 인경** 15. **삼동고리파**: 파 잎의 끝에서 파 잎이 다시 나온다. 16. **돼지파**: 횡성군 안흥면에서 재배하여온 토종파이다. 잎파인데 잎이 싹처럼 가늘고 가지를 많이 친다.
17. **쇠고리파**: 충청, 돼지파의 다른 이름이다.



파와 같은 속의 유사한 종으로 홍천의 쇠고리파(삼동고리파), 괴산, 횡성의 삼동고리파(삼충파, 삼충거리파, *Allium cepa* L. var. *multiplicans* Bailey)는 파와 양파의 중간집종(種間雜種)으로 파와는 다른 종이다. 파 잎의 끝에 서 파 잎이 다시 나온다. 또 쪽파는 파(*A. firtulosum*)와 분구형 양파(*A. ascalonicu* L. *SHALLOT*.)를 교잡친으로 하는 잡종 기원의 재배식물로 불임성이므로 종자가 생기지 않는다.

<파의 생리활성 및 효능>

- 스테미너 강화, 냉증 치료 작용: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의 활동도 좋아진다.
- 기침, 감기, 해열작용: 파의 흰 부분을 잘게 썰고 생강을 섞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몸이 후끈 후끈해지고 땀이 나면서 열이 내린다.
- 병이 나은 후 원기 회복작용: Allicine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몸이 허약해지는 여름철의 피로회복에 좋다.
- 항균작용: 파의 휘발성 성분 등에는 디프테리아, 결핵균, 이질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에 대하여 정균 작용이 있다.
- 이뇨작용이 있다.
- 비타민 B의 활동 상승작용: 알리신은 비타민 B의 흡수를 높이는 성질이 있다.
- 진정작용: 유효알칼리는 진정작용이 있어 신경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향기를 맡으면 흥분이 진정되어 잠을 잘 수 있다. 또 목이 아플 때 파를 채쳐서 청주와 물을 부은 뒤 10여분쯤 끓여 마시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안완식박사의 토종재료 레시피

실파김치

재료: 실파 300g, 젓국 1/2컵, 통깨 1큰술, 고춧가루 1/2컵, 설탕 2큰술, 참깨가루 5큰술, 말린 오징어(소) 1마리,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소금 조금



1. 실파는 뿌리를 자르고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 놓는다.
2. 1의 실파를 소금물에 적셔서 씻어 건져 채반에 널어 햇볕에 꾸덕꾸덕하게 말린다.
3. 참깨가루는 묽은 참쌀 풀을 끓여놓는다.
4. 말린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5. 꾸덕꾸덕하게 말린 파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오징어를 섞고 생강, 마늘, 통깨, 젓국 등으로 간을 하여 버무려 독에 담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가늘게 썬 파에 된장을 섞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면 땀이 죽 빠지면서 열이 빨리 내린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할 때도 파를 달여서 그대로 마시거나 된장을 섞어 뜨거운 때 마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병으로 허약해진 사람이 여러 야채와 함께 파를 넣은 죽을 먹으면 기운이 나며, 류머티즘에는 파와 겨자, 보리를 함께 달인 물로 찜질을 하면 좋다. 동상에 걸렸을 때도 파를 달인 물에 동상환부를 담그면 쉽게 낫는다. 파에는 이뇨 작용도 있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뒤꿈치 깨끗하지 못할 때 파와 소금을 함께 찜은 다음 볶아서 면주머니에 넣고 따뜻할 때 아랫배를 찜질해 주면 소변이 잘 나온다. 치질에는 파 잎을 찢어 즙을 낸 다음 꿀을 섞어 치질 부위에 발라 주면 고칠 수 있다. 이밖에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 보챌 때 젖을 짜서 파를 섞은 뒤 달여서 조금씩 먹이면 칭얼거림이 줄어든다.

파뿌리를 달인 즙은 아랫배가 아프면서 유산이 염려될 때 도움이 된다. 임신 중에 아랫배가 아프면서 유산이 염려될 때는 파뿌리 20개를 잘 씻어 물 20컵을 붓고 물의 양이 5컵이 될 때까지 달여 즙만 받아 마신다. 파에는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임신부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한국의 전통과일

"밤(chestnut)"의 진실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나도밤나무(꽃)



나도밤나무(열매)



나도밤나무(꽃)



나도밤나무(열매)

한국의 전통적인 과일

제사상이나 명절 차례 상에 빠지는 안 되는 몇 종의 과일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밤이다. 밤은 밤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밤송이를 따서 가시로 된 과피를 벗겨낸 종자를 말하는데, 잘 익은 밤은 짙은 갈색으로 두꺼운 종피를 가진 통달통달한 모습이다. 잘 꺾어서 날로 먹거나 구워서 껍질을 벗겨내고 먹으면 제법 고소한 맛을 내는 한국 전통의 과일이다.

밤나무의 특징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자란다. 높이 10~15m이고 줄기는 지름 30~50cm이다. 나무껍질은 세로로 갈라 갈라진다. 작은가지는 자줏빛을 띤 붉은 갈색이며, 초기에는 짧은 털이 나지만 나중에는 없어진다. 잎은 어긋나고 겹가지에서는 2줄로 늘어 서며, 타원형, 긴 타원형 또는 타원 모양의 피침형이다. 길이 10~20cm, 폭 4~6cm이고 물결 모양이며, 잎 가장자리에는 끝이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겉면은 짙은 녹색이며 윤기가 있고, 뒷면은 성모(星毛: 여러 갈래로 갈라진 별 모양의 털)가 난다. 잎자루는 길이 1~1.5cm이다.

밤꽃의 상세 관찰

꽃은 암수한그루로 6월에 핀다. 수꽃은 꼬리 모양의 긴 꽃차례에 달리고, 암꽃은 그 밑에 2~3개가 둥근 모양으로 달린다. 꽃이 필 때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 꿀을 빠는 탓에, 양봉업자들은 이때를 기다려서 밤꿀을 채취하기도 한다. 밤꽃이 화려하게 핀 숲속을 거닐고 있노라면 향긋하면서도 달착지근하고, 비릿한 향기에 젖어 들게 된다.

가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열매

열매는 겉과로서 9~10월에 익으며, 1송이에 1개 또는 3개씩 들어 있다. 명절 차례상이나 제사상에는 대추와 함께 빠지는 안 되는 전통적인 주요 과일로 유명하다. 시골에서는 야산에 심어둔 나무에서 추석 무렵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을 알리는 대표적인 열매로 통한다.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굵거나 삶아 먹으면 별미의 맛을 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로 열매를 먹거리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전과류로 잘 알려진 식물들인데, 종자를 싸고 있는 열매는 가시로 덮여 있어서 이들을 수확하려면 많은 조심성이 따르기도 한다.

밤나무의 재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산에 심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재배해 왔다. 다른 과일나무에 비하여 저절로 잘 자라고, 산간지에서도 비교적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운반이 쉽고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기는 10~14℃와 4~10월의 평균기온이 16~20℃인 지방에서 잘 자란다. 침묵묘(眠木苗)는 -15~-16℃ 이하의 고장에서는 동해(凍害)가 발생하기 쉽다.

강수량은 연간 1,000~1,500mm 정도가 좋으나 6월 개화기의 경우는 결실물을 떨어뜨리기 쉽다. 너무 그늘진 북향이나 산간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뿌리를 깊이 내리므로 건조에 강하며 여러 토양에도 잘 적응하나 지하수위가 너무 높으면 수명이 짧아지기도 한다.

밤나무속(屬) 식물의 분류

꽃과 잎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박주가리과의 공통 특징은 바로 열매의 모습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열매는 밤나무는 참나무속에 속하는데, 이런 비슷한 종류들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 편이다. 밤나무와 약밤나무는 밤나무속의 식물이며, 구실잣밤나무와 모밀잣밤나무는 잣밤나무속에 속하고, 너도밤나무는 유일하게 너도밤나무속이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며 성인봉 일대에서 아름답리 군락을 형성한다. 나도밤나무는 영통하게 나도밤나무과의 나도밤나무속 식물인데, 어쨌든 이름 속에 '밤나무'라는 글자가 들어간 식물들은 모두 한 곳에 모아 정리해 본다.

한국 재래종의 두 종류 비교

한국 재래종에는 원래 한국종인 밤나무와 중국종인 약밤나무가 있다. 중국종은 알이 작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며 단맛이 많다. 그래서 품질이 매우 뛰어나지만, 밤나무후벌에 약하기 때문에 재배가 부적당하다. 해중에 강한 품종(밤나무)에는 한국에서 선발한 것과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 있다. 밤나무는 암꽃이 크고 수꽃은 밑으로 처지며, 약밤나무는 암꽃이 작고 수꽃이 하늘을 향해 곧추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열매의 보호본능

귀하고 맛있는 소중한 열매를 보호하려는 식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앙칼진 가시가 돌아 있는 것이 아닐까? 장미는 예쁜 꽃을 보호하면서 후손을 남기려는 보호본능이 있는데, 밤나무는 열매를 훔치려는 적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선물함으로써 스스로 포기하여 종족이 보존되도록 하는 보호본능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약밤나무(수꽃)



밤나무(수꽃)



약밤나무(암꽃)



밤나무(암꽃)



구실잣밤나무(꽃)



구실잣밤나무(열매)



모밀잣밤나무(꽃)



모밀잣밤나무(열매)



밤나무(열매)



숲에서 놀 줄 아는 청년이 숲을 지킨다!

나도 숲속 예술가

사진 / 글 양자선

청년들 모여 숲속 자연물로 감성을 풀어본다.

청명한 가을하늘 서대문구 안산자락에 모인 청년들. 어색함과 익숙함이 어우러지며 인사말을 건네본다. 인사와 함께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말아보는 나무냄새와 사각사각 흘리는 소리가 어색함과 긴장을 풀어 준다.



1. 어색한 첫 만남



2. 산책



3. 연못산책



2. 산책



3. 연못산책

그린 디자인이란?

산책을 마치고 활동장소에 모인 청년들은 잠깐의 산책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만으로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로 오늘의 강사, 김우진 그린디자이너를 맞이한다.



4. 그린디자인이란 뭘까?



그린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디자인이란 목적에 맞도록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디자인의 이름으로 환경을 망쳐도 되는 것인가?

강사 김우진이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 개개인에는 그만의 생명이 담겨있습니다.
모두가 자연에 오랜 평안하고 친밀함을 느낍니다.
태어나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을 ‘생태맹’이라고 합니다.
‘생태맹’을 깨치고 다시금 자연을 느끼고 아낄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그린디자인의 초기이며
모든 디자인의 근원일 것입니다.”



Green Design = Ecological Design = Eco-Friendly Design

그린디자인 = 생태디자인 = 친환경디자인

보전과 창조의 통합적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친환경디자인, 생태학디자인등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디자인이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있다.



자연예술 속으로 한걸음-나만의 표현

평소 생각지 못했던 디자인과 자연을 엮어 보며 그 안에서
의 내모습도 떠올려본다. 그린디자인을 이해해보니 조금 더
숲 속 자연들이 눈에 들어오는 듯하다. 나와 어울리는 자연
물은 뭘까, 오늘 눈에 띄는 너는 누굴까, 조금씩 조금씩 자연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 본다. 강하고 딱딱한 것, 기다랗고
약한 것,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돌
려보며 손이 가는 대로 작은 액자에 붙인다.

“배알간 구름 열매를 보니 시집가는 날
신부의 불에 쪄진 연지공지가 생각났어요.”
“시냇이 자라 싹이 토고 줄기가 자라서
꽃이 피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
“싱크홀 때문에 꼭꼭 빠지는 서울의 분간함과
혼란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가을의 붉은 낙엽을 구워 껌은 청년들과
저의 열정을 타는 꼬박불로 그렸어요.”
“보종한 잎을 구워보니 보종보종한 완두콩이 생각났어요.”



6. 커다란 숲에서 작은 무인가를 찾아 살펴본다



7. 요리조리 배치해보며 망설여지는 손



8. 거침없이 빠르게 또는 차분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손



9. 작품의 세계로 몰두



시집가는날



뿌리부터 꽃까지



소울 오브 서울



완두콩



타는듯한 열정



10. 작품모음



11. 도형과 맞는 자연물찾기



12. 도형과 자연물

자연예술 속으로 두걸음-관찰과 상상

굳어있던 마음과 감성이 깨어지니 표현이 더욱 풍성해진다. 여러 형태가 그려져 있는 미니카드를 가지고 연상되는 것들을 자연물로 표현해본다. 상상의 힘이 발산된다. 느낌표가 되버린 나뭇가지와 나뭇잎, 구불구불한 선들은 마주나기 한 아가씨 옆으로, 무한점들은 종자들이 맺혀가는 실새포로, 번개모양은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가 된다. 왜 이런 자연물을 가지고 왔는지 즐거운 설명을 듣다보면 웃음이 나고 상대방의 감성과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13. 이야기듣기



자연예술 속으로 세걸음-종합 예술

주머니에 담긴 자연물을 뽑아 모듬을 만들고 내가 살고 싶은 우리의 집을 함께 토론하며 꾸미본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디어들이 샘솟는다.

“나무 기둥을 세우자”
“열매들을 모아 텃밭도 만들고,
지붕은 큰 낙엽으로 씌우는 게 어때?”

아파트와 빌라, 원룸에 밀집한 청년들이 현실의 조건들에 맞추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연물과 연결시켜 집을 지어가니 풍성한 에너지와 힘이 샘솟는다.



14. 자연물로 모듬 정하기



15. 내가 살고 싶은 집 우리의 집

15. 내가 살고 싶은 집 우리의 집

17. 집을 지으려면 허리를 굽히고 땅과 가까워질 수 밖에

18. 상의하고 의논하고 지어나간다

최초로 일체적인 집을 지은 도토리 모듬. 시원하게 바람이 통하면서 돌맹이들을 주변에 두고 단풍을 모아 안전하고 따스한 집을 표현했다. 동백나무 모듬은 집 주변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타내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 자연과 친밀하고 가까울 수 있는 집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타냈다.



자연예술 속으로 더 깊숙히-감사와 소중함

마지막으로 오늘 숲에서의 자연예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집으로 다시금 자연에 돌려주는 선물을 만드는 것이다. 술방울에 각가지 자연재료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려준다.



20.마무리로 자연에게 선물



20.마무리로 자연에게 선물



21.자연에게선물



21.자연에게선물



22.자연에 놀아주기



숲에서 놀기, 자연과 가까워지기가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이 멀어지고 어려워졌지만 내가 먼저 한발 다가가면 언제나 양팔 벌려 품어주는 것이 자연이고 숲이다. 단순히 자연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보고 관찰해 보는 것들을 시작으로 한발 더 한발 더 나아가면서 자연의 순환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자아와 자연을 동화시킬 수 있다.

숲과 예술로 하나 되고 여럿이 모여 생각과 마음을 나눈 오늘날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 playinfores@gmail.com
 청어가 궁금하다면? : www.facebook.com/youthgreen

청어는?
 '청' 년, 숲과 '어' 울리다!
 '청년'과 '어린이'!
 청년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어울려
 놀기를 꿈꾸는 모임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숲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끄는 청년이 되고자 합니다.

안산 초록숲길 프로그램은?
 G마켓, 서둘시, 생명의 숲이 함께
 다양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숲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쾌적한 숲탐방 환경을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어는 안산 초록숲길 프로그램을 주관하며,
 숲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청어 2014 하반기 프로그램 일정

○ 9월 :
 12~27일 한강 놀이대장 양성과정
 27일 (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9월 어울림

○ 10월:
 9일 (목) 한강캐주얼한강활동
 (놀이대장과 한강에서 놀자!)
 25일 (토) 안산 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10월 어울림

○ 11월:
 1일 (토) 안산초록숲길
 (안산 숲 박람회)
 1일 (토) 안산초록숲길 캠페인
 22일 (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 11월 어울림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놀이대장이랑! 한강에서 놀~자!

한강 놀이대장 1기 강사들과함께 재밌는 놀이를 즐기고,
세 놀이에 모두 스티커를 받아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놀이대장이랑 한강에서 놀자' 프로그램 안내

운영일시 매주 토요일 10:30~12:00
 운영장소 여의도 샛강안내센터 및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일대
 운영대상 놀이대장과 놀고 싶은 초등생
 운영인원 30명 내외 (선착순)
 신청방법 서울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

✉ Playinfores@gmail.com
 f www.facebook.com/youthgreen



정원도구 특가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재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샐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거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20%
~최대 30%할인



꼬물이화분
Sedum Pot 5,000원 / 30분



샐러드박스
Salad Box 7,000원 / 1시간

Garden Culture
Experience Program

청소년, 성인, 가족을 위한 정원문화체험



공룡알화분 Dinosaur Egg Pot 15,000원 / 1시간



파종과 삼목
Seeding & Cutting 5,000원 / 30분



씨앗미술
Seed Art 7,000원 / 1시간



가족화분 Family Pot 30,000원 / 1시간



구근화분
Bulb Pot 25,000원
1시간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인/ 가족)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 참여 가능(가격 문의) * 배송가능

* 체험안내 문의: 블로그(http://blog.naver.com/gardenjoa777), 전화문의

가든조아 : 031-634-7990



식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역사

식물은,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인 약 4억 7,000만 년간 곳곳에 존재해 왔다. 반면, 인간이 이 행성에 발을 붙인 시간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에 불과하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한 사건은 20분 전의 일이고, 그리스도교가 생겨난 것은 고작 15분 전의 일이며, 백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들인 데에는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일 따름이다. 고대부터 인간에게 주저장소와 연료 그리고 식량과 약을 제공한 식물은 우리가 들어서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양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을 주기도 하며,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식물은 인간의 구분별한 이용으로 때로는 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50가지 식물의 역사적 기록을 되짚어보며 인간과 식물이 왜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한다.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식물에 대한 고마움과 오늘날 계속되는 식물의 구분별한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로마의 멸망에 양배추가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285~305년간 제위한 로마 황제로 무정부 상태다. 다음인 로마에 전제군주정을 수립하고, 4분 통치제라는 효율적인 통치 체제로 제국의 통일과 질서를 확립해 로마의 역사에 있어 전환점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다. 역사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로마 황제가 양배추를 기르겠다고 제위에서 일찍이 물러났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의 제위 포기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다. 그러나 그 설에 양배추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배추를 향한 그의 지독한 사랑은 제국이 내란에 빠지던 중에도 친유에게 양배추 예찬문을 펼치게 할 만큼 병적인 수준이었다. 그의 제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로마 멸망에 있어 그의 부재가 어쩌면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리란 추측이다. 역사의 판도를 바꾼 식물이 비단 양배추뿐이었는가.

하얀 사신, 노예를 창출하다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담배와 더불어 오랜 세월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또 하나의 물질, 바로 설탕이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설탕이 초래한 혼란을 되짚었을 때 설탕만 별칭인 “하얀 사신”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비된 설탕은 2,500년 전부터 인도인들에 의해 정제되었는데, 이러한 정제 기술이 유럽 등 서양 세계에 알려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향신료와 마찬가지로 설탕 역시 경제의 중추가 되고 베네치아와 북유럽을 거쳐 스페인에서 생산하게 된 사탕수수 그들의 주인이 그리스도 교도와는 대립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하자 카나리아 제도와 가리브 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곳에 노예로 들여졌고, 설탕과 노예 매매라는 이 비극적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식물, 역사를 뒤집다

저자 빌 로스 역자 서종기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비밀스러운 탐사가 시작된다!

식물의 이면에 숨겨진 뒷이야기

최초의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함유되었다?

양배추가 없었더라면 로마의 멸망이 더뎠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노동 착취를 당한 노예는 다른 아닌 식물 때문에 탄생했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모는 담배가 한때는 기적의 치료제였다?

이 책은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50가지의 식물을 통해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마주한다. 과거, 인간과 식물의 불가피한 공생 관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공생에 대해서도 고민의 여지를 던진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서 식물을 지배한다 한들 절대 변하지 않을 명징한 사실, “식물은, 역사를 뒤집었다!”

매춘과 거세, 추방과 살해

18세기 발견된 고분은, 가황법의 등장으로 세롭게 응용되어 금기야는 각종 공장 실험실, 불법 작업장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한 발명품이 바로 미국의 메리벨이 제작한 고무 구명복이며, 이어 톱고무 타이어의 발명은 문명의 이기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쾌락을, 원주민들에게는 불행을 선사했다. 고무수액의 값이 급감처럼 올라가자 고무 제조업자들에 의해 원주민들은 노예처럼 부려지며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 거부하는 이들은 추방되거나 살해당했으며, 여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했고 남자들은 자손을 보지 못하도록 세세되기까지 했다.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자연이 과학과 더불어 문명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부의 창출에 눈이 먼 자본가들에 의해 인도주의적 시각은 없는 인종 차별이 부각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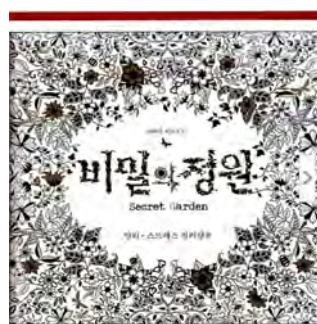
고흐의 해바라기가 탄생하기까지

아메리카 서부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은 가장 먼저 해바라기를 재배해 약 2,000~3,000년 전부터 해바라기의 씨를 갈아 가루를 내 사용했다. 그들은 씨에서 추출한 각종 색 염료로 화려한 빛깔의 직물과 도자기를 가공하기도 했다. 줄기로는 천과 바구니를 짰으며, 심지어 뱀이나 독충에 물린 상처 치료로 해바라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만의 해바라기는 신대륙 탐사로 유럽인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한 역사적 흐름은 19세기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 고흐의 《해바라기》 연작 탄생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고흐는 일생 동안 시간이 지나면 사들여버리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매일 이른 아침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 유명한 임페스트 화법으로 해바라기에 입체적인 질감을 부여하는 등 독창적이고 날다른 감각으로 가장 유명한 회화의 대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독수리나? 약초나? 기로에 선 인류의 선택

태평양의 원로인 용설란부터 고대의 의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치료제였던 4대 명약의 필수 재료인 생강에 이르기까지 총 50가지에 달하는 식물은 인간의 역사가 조금씩 모습을 갖추어 따라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구의 생명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 식물의 호흡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다. 어쩌면 식물은 인간과 같은 육상 동물의 진화를 위해 역사 이전의 기후대변동 속에서 광합성 작용을 발달시키고 DNA의 문을 열어 우리가 갈 길을 터준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식물이 때때로 독으로 이용된 것은 바로 인간의 무지한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진 이어진 인간의 무지함은 최근에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만약 전 세계의 식물이 갑자기 멸종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는가. 식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구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역사의 흐름은 영원히 바뀌지도 모른다.

[인턴트 교보문고 제공]



비밀의 정원

저자 조해너 베스포드 원제 Secret Garden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 '비밀의 정원'.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으로 열풍을 일으킨《비밀의 정원》이 전 세계 14번째로 한국에서 출간되었다.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라베이션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인정받은 젊은 아티스트 조해너 베스포드의 이번 작품은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책은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으로, 색색의 펜으로 종이를 채워가는 아날로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색연필과 펜만 있으면 누구든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작품집을 완성할 수 있다. 작가가 하나하나 손으로 그린 흑백의 정교하고 세밀한 그림을 색칠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매여 있는 성인들에게 정신 집중과 이완을 통한 기분전환을, 더불어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금 세계는 어른들을 위한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 열풍

아이들을 위한 ‘색칠공부’가 아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의 인기는 서점가의 사건을 넘어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 되었다. 서점가에는 어린이용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한 무늬의 다양한 성인용 컬러링북이 수없이 총 나와 있고, 특히 50만 부가 넘는 컬러링북이 팔리는 시장이 형성된 프랑스에서는 요리책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실용서가 되었다.

그 비결은 컬러링북 특유의 ‘안티-스트레스’라는 용도에 있다. 정신을 집중하여 색칠을 하다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비워지고 걱정과 긴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더욱 피곤해진 일상을 잠시 접고, 모니터와 키보드 가 아닌 손과 종이와 잉크를 이용해 아날로그 세계로 빠져들면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이미 수십만의 성인들이 증명해 보인 셈이다.

독특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움—조해너 베스포드의 작품 세계

이 책 비밀의 정원은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2013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이미 13개국에 판매되었다. 영국에서 10만 부, 미국에서 12만 부가 팔렸고, 프랑스에서는 출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매주 2천 명의 독자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미 DKNY, 나이키, 애플루트, 크래프트리엔에블린, 퀸즈베리헨트 등과 함께 작업하면서 명성을 쌓고 있는 조해너 베스포드의 첫 책 비밀의 정원은 ‘색칠하기’의 활용이 아니라라도 작품으로서 감상하고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 ‘픽셀보다 펜과 펜슬이 더 좋다’는 작가의 취향대로 하나하나 손으로 그린 흑백의 정교하고 세밀한 무늬들은 한눈에도 아름답고 몽환적으로 느껴지지만,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더욱 요묘한 마력을 뿜어낸다. 컬러링북이라는 대중적인 형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작품 세계를 선보인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환상적인 컬러링북을 출간할 예정이다.

[에스24 제공]

GARDEN & MOVIE

이달의 영화



세인트 클라우드 (2010)
Charlie St. Cloud
잭 에프론, 이만다 크루

Synopsis

유명한 고교 오토 선수 찰리는 장학생으로 대학 입학 후 모든 축망 받는 청년. 졸업식을 마치고 큰 미래를 향해 꿈에 부풀어 있던 찰리는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는다. 자신을 영웅처럼 여기는 어린 남동생 샘과 차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 두 형제 모두 심장이 멈춘 순간, 찰리는 극적으로 살아나지만 동생은 깨어나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찰리, 그런데 동생 장례식 날 찰리의 눈 앞에 동생의 영혼이 나타난다.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 돌아온 찰리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혼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생겨난 것. 찰리는 외로운 동생과 함께 하기 위해 매일 해가 질 무렵, 공터에서 야구를 하기로 약속한다. 자신의 미래는 모두 포기한 채, 그리고 5년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던 찰리는 매력적이고 활발한 테스를 만난다. 찰리는 세계 오토 대회를 앞둔 테스를 만나면서 잊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그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테스는 찰리에게 함께 대회에 나가자고 제안하지만, 이제 찰리는 운명처럼 만난 연인 테스와 동생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테스와 함께 고향을 떠난다면, 다시는 동생의 영혼을 만날 수 없기 때문.

그러던 중 테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 걸 알고 찰리는 그녀에게 달려가는데

다른 영화 줄거리 별칭



이번 호에서는 정원이 아닌 미국의 묘지를 관리하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2010년도의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국내 개봉은 하지 못하였고 정원에 관련된 어떤 구분을 할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달리 공원의 형태를 띄우며 상주관리인을 두고 잔디와 꽃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으로 나오는 영화임에 선택하게 되었다.



지방의 한 소도시 주택의 마당에는 화단과 나무가 많이 보이며 고층건물보다는 단층 2층 건물들이 보인다.



묘지의 사택 옆 관리물품이 쌓여져있다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다른 묘지풍경



타본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덧칠하는 것도 관리사의 몫



잔디밭을 깔고 있다



묘지를 다니는 관리자 전용 카트



묘지 옆쪽 공터. 조경물이 있어 묘지의 느낌을 줄어준다



BOOK & FESTIVAL

11월, 단풍을 보자

붉고 노란 산이 부른다. 푸른 옷을 벗고 컬러풀한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 눈요기하러 떠나 볼까?

팔공산 가을단풍축제

팔공산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014 팔공산 단풍축제>가 개최된다. 올해로 제15회째를 맞이하는 단풍축제는 순환도로를 따라 16.3km에 걸쳐 펼쳐지는 단풍거리의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팔공산절경과 함께 단풍의 멋과 향기,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기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

주최 참가변영희

문의 053-982-7634 <http://www.palgongsan.org>



장성백양단풍축제

산과 물 인간의 역사가 조화를 이룬 곳 '전남 장성'에서는 노령의 정기를 담은 백암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지나무 숲속의 천년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하순~11월초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한다.

기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주최 장성군청 문화관광과

문의 061-393-1989 <http://tour.jangseong.go.kr>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지리산이 붉게 불타니 산홍 붉은 단풍이 비치는 맑은 소가 붉으니 수홍 지리산의 품에 안긴 사람의 얼굴도 붉게 물들어 보이니 흥으로 유명한 피아골마을에서 피아골단풍축제를 개최한다.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2014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는 '삼홍(三紅)과 함께하는 오색단층 여행'이라는 주제로 단풍공원 및 피아골 일원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중 연곡사 문화재 관람료는 면제된다

기간 2014.11.0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368

문의 061-780-2227 <http://festival.gurye.go.kr>



성주산단풍축제

성주산 단풍축제는 아름다운 성주산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민속경기를 비롯해 성주산을 찾는 관광객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기간 2014.11.01 ~ 2014.11.01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

주최 보령군 문화관광

문의 041-930-3651 <http://ubtour.go.kr>



11월의 어느 멋진 날에~!!

11월의 축제

한 해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10월에 세계 각지에서는 각종 기념축제가 펼쳐진다.

아이들을 위해, 나라와 도시의 성인들을 위한 축제들을 알아보자.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마지막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16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는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사추세츠주에 도착한 해이다.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그 중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옥수수나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후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단지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의 청교도들의 의지가 아직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지금도 과거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구운 칠면조 요리, 크랜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등을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필리핀 만성절 11월 1일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All Saints Day. 또한 일반적으로 할로윈마스(Hallowmas, hollow는 앵글로 색슨어로 <성인>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11월 1일, 동방교회에서는 성령강림제 후의 최초의 일요일에 축하하는데 이 축일은 4세기에 동방 교회에서 시작해서 점차로 서구로 전해졌으며, 그날이 11월 1일로 거의 고정된 것은 800년경이라고 하며, 교황 그레고리오 4세(재위827~844)가 이날을 로마 교회의 제일표에 넣었다. 11월 1일은 2월 2일, 5월 1일, 8월 1일과 함께 대부분의 생활을 묵축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교시대의 4대 제일의 하나로,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날로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 전 야인 할라윈은 새 불을 피우는 날로서 성대한 화제(火祭)가 행하여졌다. 농민은 불을 피워서 선조의 영을 인도하고 악마를 쫓았다. 이 날에 사자를 제사지내는 습관은 유럽 전역에서 널리 행하여졌는데, 교회는 이런 이교의 관습을 제지하기 위해서 만성절을 정하고, 또한 이듬해 11월 2일을 만령절(萬靈節, All Souls' Day)이라고 하였으며 영국에서는 축제의 관습이 가이 포크스 데이(11월5일)에 남아있다.



일본 시치고산 11월 15일

11월 15일 전후에는 각지의 신사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에도 시대 중기부터 시작된 시치고산(七五三)이다. 이 시치고산은 3세, 5세의 남자아이와 3세, 7세의 여자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신사에 참배하는 풍습이다. 신사에서는 신관(神官: 간누시) 주재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비는 액막이(오하라이) 행사를 하는데, 이 시치고산은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세짜리 여자아이는 기모노 위에 빨간 하후(코트)를 입는다. 7세짜리의 여자아이는 기모노를, 남자아이는 블레이저 코트를 많이 입는다. 옛날에는 3세, 7세 여자아이의 경우 기모노를 입고 있었으므로 오비노이와이라 하여 이날 돌 띠를 떼고 오비(허리띠)를 매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는 하카마(일본 옷의 남자 정장 하의)를 입는 기념일이기도 했다. 시치고산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 도쿄에서 간사이(關西) 지방으로 퍼지다가 지금은 일본 전국에서 지리지고 있다.

러시아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월 8일 직전 토요일

성주간(聖週間)의 마지막 날로서 이미 부활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6부의 주요 제식(祭式)에 이어서 <부활 전일(前日)의 장엄 미사>가 행해진다. 그 가운데 글로리아베, 사순절 중 침묵해 있던 종이 처음으로 울린다(부활의 종). 아누스 데이는 없다. 특히 그리스 정교회에서의 성 토요일 제식과 노래는 가톨릭 이상으로 성대하다 러시아의 추석이라 할만 한 것은 '성 드미트리 토요일'(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다. 이날 러시아인들은 조상들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고,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다. 햇곡식으로 빚은 보드카를 돌려 마시며, 조상들을 회상하는 옛 이야기를 나눈다. 성묘를 가서는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주고 새들에게 곡식을 던져주기도 한다.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380년 몽골군을 패퇴시킨 드미트리 돈스코가 11월 8일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진 데서 유래했으며, 러시아 정교회가 이날을 '성 드미트리의 날'로 정해 전사자와 조상들을 함께 추모하면서 추수감사절 성격이 더해졌다.

프랑스 보졸레누보축제 11월 셋째주 목요일



와인과 사람은 오래 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보졸레누보는 예외다. 그 해 여름 햇살을 듬뿍 받고 자란 포도를 이용해 담근 햇포도주를 전세계적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자정을 기해 일제히 시판에 들어간다. 햇포도주를 시음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1951년부터 매년 보졸레누보(Beaujolais Nouveau)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11월이 되면 포도주축제(Les Sarmen telles)와 보졸레미식가축제(La Fete Du Beaujolais Gourmand)가 열리는 보졸레지역을 비롯해 프랑스 곳곳의 카페들은 '보졸레누보상륙'이라는 포스터와 포도를 연상케 하는 장식들로 꾸며진다. 오전에는 가게마다 새로 출시된 보졸레누보를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오래 두고 마시는 일반 포도주와 달리 붉은빛이 강하게 도는 보졸레누보는 씹쓸함 대신 약간 뽀뽀하면서 포도 본래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다. 곁들이는 안주로 양질의 햄과 치즈 등을 추천한다.

16.6% OFF

[illegible]

■ 문의전화 : 031-712-7009

16.6% OFF

Gardenin



40% 할인권

[기간] 2014. 11. 1 ~ 2014. 11. 30

Gardenin

정성껏 만든 이번 달 〈가든인〉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었는지 적어 〈가
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하
겠습니다.

-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Gardenin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농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테르메덴 40% 할인권



Gardenin

미림가든센터 e shop **조이가든**

114 - Garden in November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만약 달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